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2025 Annual Repor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 인사말

6 통일평화연구원 소개

8 목적·비전

9 연혁

10 조직

12 구성원

17 해외 협력 네트워크

19 국내 협력 네트워크

20 언론 속의 IPUS

25 해외·국내 교류

28 2024-2025 연구 및 사업

30 학술행사

- 국내학술회의
- 국제학술회의

54 통일학센터

- 통일학포럼
- 통일학세미나

70 평화학센터

- 평화학포럼
- 평화학세미나

90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95 교육 및 아웃리치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 제23기 통일이카데미
- 제12기 평화아카데미
- 제2기 최고지도자 과정
- 제4회 시민평화학교
- 제4회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

103 출판

- 통일학 시리즈
- AJP
- 통일과 평화
-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
- 한-미 정책 브리프 (ROK-US POLICY BRIEF)



인사말 Greetings



김범수 | 통일평화연구원장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연구와 교육, 정책개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 발족한 '통일포럼'을 모태로 2006년에 '통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평화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소를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통일의식조사,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 북한사회변동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통합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이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이 기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자료는 다수의 학술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및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10년간 인문한국(HK) 사업의 지원으로 평화인문학연구단을 운영하며 한반도 문제에 기초한 평화학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학교 학내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15년부터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북한, 통일, 평화, 안보,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 통일, 평화와 관련된 교육도 통일평화연구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이카데미, 평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통일평화연구원이 시흥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시흥시와 협력하여 시민평화학교와 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 평화에 관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논의하는 통일학포럼과 평화학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SCOPUS 등재 영문학술지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을 매년 2회, KCI 등재 국문학술지 『통일과 평화』를 매년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과 동북아 정세, 남북 통일에 관한 연구 경험과 역량 축적을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 문제로 시야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 연구와 통일학뿐 아니라 평화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한반도 통일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지혜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김범수**



2024-2025 Annual Report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일평화연구원 소개

- 8 목적·비전
- 9 연혁
- 10 조직
- 12 구성원
- 17 국외 협력 네트워크
- 19 국내 협력 네트워크
- 20 언론 속의 IPUS
- 25 국외·국내 교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적 Goal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은 '통일'과 '평화'를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 및 평화실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비전 Vision

융복합적 통일학 확립

통일대비 다학제적 과제들의 총체적 연구, 남북한 통합과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적 조사와 변동연구를 통해 21세기형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합모델을 구축한다.

<한반도발 평화학> 정립

평화인문학 정립을 통해 평화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통일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발 평화학을 제안하며, 평화문화의 전 지구적 확산을 도모한다.

차세대 통일·평화 연구역량 강화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학문후속세대양성 방안을 개발하여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 및 소통을 증진한다.

서울대 통일연구 인프라 구축

'통일의학센터', '통일법센터', '통일교육연구센터', '대북영양정책지원실', '북한·해외농업연구소' 등 서울대 내 통일·북한관련 연구소들간 교류협력의 구심점으로 <서울대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조직, 활성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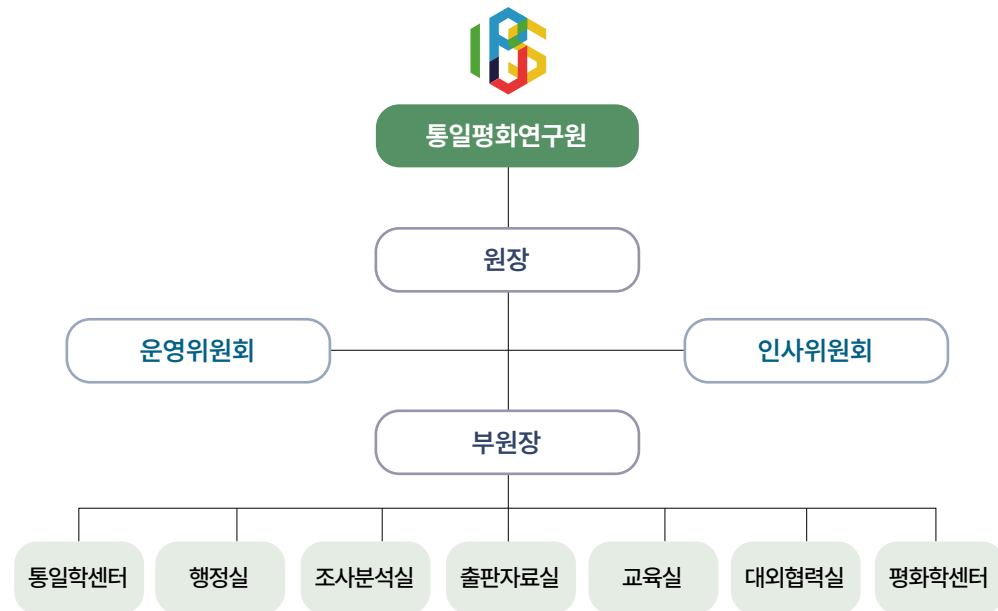
통일학·평화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SNU국제평화학네트워크》와 《동북아협력네트워크》의 이원적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연구를 국제화하고 한반도발 평화학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연혁 History

- 2024. 09. ○ 통일·안보 클러스터 출범
- 2024. 09. ○ <한-미 정책 브리프> 발간
- 2024. 04. ○ 국문저널 <통일과 평화> 연 4회로 증간
- 2023. 10. ○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과정 출범
- 2023. 03. ○ 9대 원장 김범수 교수 취임
- 2021. 05. ○ 8대 원장 김병연 교수 취임
- 2019. 12. ○ The SNU OLIVE Initiative for Peace Research 출범
- 2019. 06.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출범
- 2018. 03. ○ 7대 원장 임경훈 교수 취임
- 2016. 05. ○ 6대 원장 정근식 교수 취임
- 2016. 03. ○ 통일교육선도대학 선정
- 2015. 07. ○ 통일기반구축사업 시작
- 2014. 06. ○ 통일연구 네트워크 출범
- 2013. 10. ○ 제1기 평화아카데미 출범
- 2013. 05. ○ 영문저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창간
- 2022. 04.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10. 1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HK평화인문연구단 사업 선정
- 2009. 06. ○ 국문저널 <통일과평화> 창간
- 2008. 08. 2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로 명칭 개정
- 2007. 05. ○ 통일의식조사 시작
- 2007. 04. ○ 제1기 통일아카데미 출범
- 2006. 04. 12.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설립(초대 소장 박명규 교수)
- 2003. 10. ○ 통일학연구 지원사업 시작
- 2003. 08. ○ 서울대학교 통일학 운영위원회 발족(위원장 전인영 교수)
- 2000. 11. ○ 서울대학교 통일포럼 출범(위원장 장달중 교수)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구성과 조직

운영위원회

구분	학과(부)	성명	구분	학과(부)	성명
원장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위원	정치외교학부	김종학
부원장/ 평화학센터장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의학과	박상민
통일학센터장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국제농업기술학과	박미선
조사분석실장, 출판자료실장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환경계획과	김부열
교육실장	지리학과	신혜란		윤리교육과	김상범
대외협력실장	건설환경공학부	박용성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인사위원회

성명	소속 대학(원)	학과(부)	성명	소속 대학(원)	학과(부)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윤지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정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구민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김월희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이효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구성원 People

원장/부원장/평화학센터장



김범수

원장

자유전공학부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정치이론 (정의론, 인권론, 평화론,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윤지현

부원장/평화학센터장

식품영양학과 교수
(퍼듀대학교 푸드서비스경영학 박사)
연구분야: 식품영양정책 및 급식외식관리

HK교수



이문영

HK 부교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문학 박사
연구분야: 러시아/탈사회주의권 문화연구, 평화인문학



백지운

HK 부교수

연세대학교 문학 박사
연구분야: 중국학, 동아시아 사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한모니까

HK 조교수

가톨릭대학교 역사학 박사
연구분야: 한국현대사, 한국전쟁, 접경지역, 북한지역사

통일학센터장/조사분석실장/출판자료실장/대외협력실장/교육실장



이정철

통일학센터장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북한정치경제, 남북관계



김병로

조사분석실장, 출판자료실장

통일평화연구원 HK 부교수
(렛거스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구분야: 정치사회학, 북한연구, 남북관계, 통일정책



박용성

대외협력실장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코넬대학교 토목환경공학 박사)
연구분야: 해안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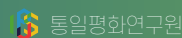


신혜란

교육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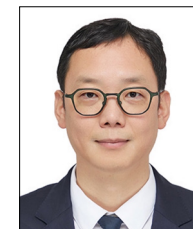
지리학과 교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연구분야: 정치지리, 이민자 연구

선임연구원



김영호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정치경제학원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중국연구, 북한경제, 동아시아경제협력



이유철

브리스톨 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국제정치이론, 국제규범 및 윤리, 신기술 안보, 경제 안보



이종진

서울대학교 외교학 박사
연구분야: 국가 전략,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우주 안보, 영향력 작전



조현주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국제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 국제 분쟁, 영토 분쟁

구성원

연구원



김민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담당: 통일의식조사,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국립대네트워크



신인석

동국대학교 북한학 석사
담당: 조사사업, 아카데미



김보라

씨라큐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담당: AJP영문저널



권지애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담당: 최고지도자 과정,
시흥아카데미, ROK-US POLICY
BRIEF

프로젝트 연구원



조준형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담당: 통일학포럼, 평화학포럼,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행정실



장미숙

행정실장
담당: 행정총괄, 교원인사



이정희

행정원
담당: 일반사무, 법인회계



권선혜

행정원
담당: 연구비 관리, 집행

객원연구원



김성철

통일평화연구원



양윤정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천해성

통일평화연구원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구성원

자문위원



김현태

(주)베니키아재팬 대표이사 사장,
(주)칼튼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사장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박폴라

East Sea Trading, Prime Property
Management & investment
Services LLC CEO /
前 워싱턴한인회장



박호성

북방통상 대표이사,
아시아한인총연합회 고문



심상만

KOTEC 인디아 회장,
세계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



안용호

WAVA Corp CEO



조홍선

나이지리아 한인회장

국외 협력 네트워크 Foreign cooperation network

국외 주요 협력 MOU 체결

연번	날짜	협력기관	국가
24	2025.06.17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nd)	독일
23	2024.07.09	Nagasaki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나가사키핵무기철폐연구소, 3rd)	일본
22	2023.11.28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 Hunan Normal University (호남사범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중국
21	2023.09.27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미국
20	2023.03.17	Center for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Studies, Ritsumeikan University (리츠메이칸 대학 동아시아평화협력연구센터)	일본
19	2019.10.31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스웨덴
18	2019.10.28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러시아연방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극동 역사, 고고학, 민속학 연구소)	러시아
17	2019.10.16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of the Central Region (베트남 사회과학원 중앙지역사회과학연구소)	베트남
16	2019.10.15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Studies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베트남
15	2019.01.10	Hiroshima Peace Institute, Hiroshima City University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일본
14	2019.01.09	Nagasaki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나가사키 핵무기 철폐연구소, 2nd)	일본
13	2019.01.05	Graduate Institute for Taiwan Studies of Xiamen University (샤먼대 대만연구원)	중국

연번	날짜	협력기관	국가
12	2018.06.07.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우드로 윌슨센터)	미국
11	2017.12.18.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중국화동사범대학교)	중국
10	2017.01.05.	Free University of Berlin (베를린 자유대학교)	독일
9	2014.12.24.	Yanbian University Korean Peninsula Collaborative Innovation Center (연변대 한반도 공동혁신센터)	중국
8	2014.02.01.	Nagasaki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나가사키 핵무기 철폐연구소)	일본
7	2012.09.26.	Osaka University, Osaka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오사카 대학교 국제공공정책연구소)	일본
6	2012.09.22.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러시아
5	2012.08.15.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러시아
4	2012.08.13.	Moscow State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센터, 아시아 아프리카 학부)	러시아
3	2011.09.15.	Library of Congress (미의회 도서관)	미국
2	2007.10.17.	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 (러시아 주립사회대학교)	러시아
1	2007.09.26.	Hanns.Seidel.Stiftung (한스 자이델재단)	독일

국내 협력 네트워크 Domestic cooperatio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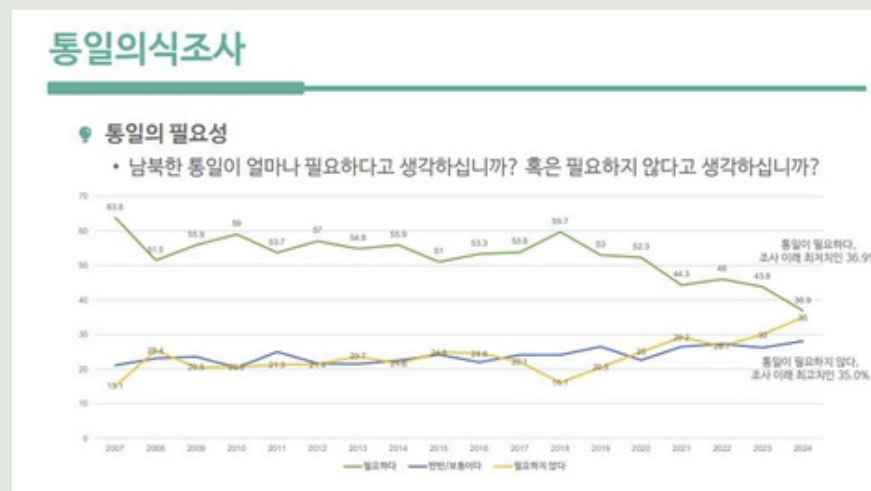
국내 주요 협력 MOU 체결

연번	날짜	협력기관
23	2024.04.16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22	2023.11.08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1	2023.10.19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
20	2023.06.27	제주대학교 통일교육센터
19	2023.06.26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18	2023.06.02	제주평화연구원
17	2023.05.22	세계한인회총연합회
16	2022.05.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	2020.10.30.	통일교육원
14	2020.10.08.	한국법제연구원
13	2019.06.25.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12	2018.06.07.	강원대학교, 인천대학교
11	2018.01.1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0	2017.06.20.	인천대학교 통일후통합연구원
9	2017.03.2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	2016.10.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	2016.0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2013.02.04.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재체결
5	2012.02.22.	한국학술정보
4	2012.11.06.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단
3	2011.07.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	2008.02.04.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1	2007.12.03	통일연구원

언론 속의 IPUS IPUS in the Press

“통일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 역대 최고...2030 부정적 인식 강해”

(연합뉴스 2024.10.02)



[현혜란 기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 발표

‘통일 필요하지 않다’ 35.0%...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일 공개한 ‘2024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와 ‘별로’를 합해 35.0%로 200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와 ‘약간’을 합해 3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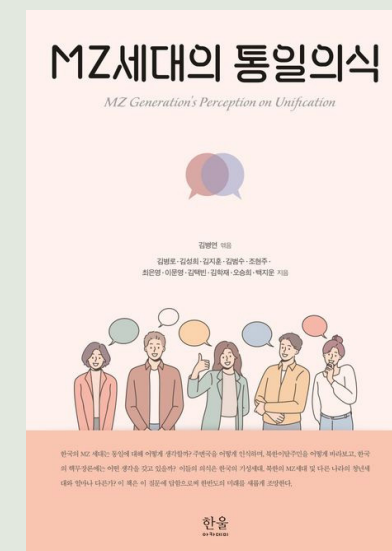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갤럽이 지난 7월 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8%다.

runran@yna.co.kr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45900504?input=1195m>

[복스&] MZ세대는 왜 통일을 싫어할까

(서울경제 2024.10.25)



[서지혜 기자]

지금의 MZ세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 전세대 중 어느 세대보다도 북한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집단이 바로 MZ세대다. 이들의 통일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MZ세대의 통일의식’은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미래 남북관계를 주도할 MZ세대의 통일 인식을 조망한다. 저자는 동서독의 통일 전략과 대만 젊은 층의 양안 관계에 대한 인식, 일본 MZ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며 현 시대에 통일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MZ세대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기사 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PGAOS14>

언론 속의 IPUS

서울대 '제2기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36명 수료

(베라티스알파 2025.02.10.)



[박소현 기자]

서울대는 통일평화연구원이 개설한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제2기가 5일 수료식을 끝으로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포사회의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해 개설된 과정으로, 교육과정은 재외동포가 수강할 수 있도록 대면강좌와 비대면강좌를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강의는 대전환기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평화와 남북관계, 민족정체성과 세계시민, 문화예술과 재외동포 등을 주제로 총 30회로 구성됐고, 2024년 9월26~30일과 2025년 2월 1~5일 실시된 대면 집중강좌 기간 동안에는 모든 수강생들이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숙식하며 강의에 참여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과 비대면 강좌의 강사진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용진 전 국회의원 등 국내 전문가와 약 20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기사 원문: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659>

광주서 '민주주의 회복' 특별학술회의 개최

(연합뉴스 2025.02.21)



[장아름 기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을 주제로 한 특별학술회의가 열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한국정치학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컬쳐호텔 람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총 5개 세션 중 3개 세션은 21일 열리고 2개 세션은 오는 22일 이어진다.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122600054?input=1195m>

언론 속의 IPU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민주통일 부문 수상
(E-동아 2025.04.22.)



[방효정 기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이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가 시상하는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민주통일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3일, 고 정일형 박사의 43주기를 맞아 서울 중구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였던 고 정일형 박사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로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고 이태영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제정되었으며, 민주주의와 통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매년 수여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창립 이래 지난 20여 년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연구와 교육, 정책 개발 등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기사 원문: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40>

국외·국내 교류 Foreign and domestic exchanges



UAE 국방대 통일평화연구원 및 아시아연구소 기관 방문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방원 간담회

국외·국내 교류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철폐연구소(RECNA) 기관 방문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방원 간담회



중국 호남사범대학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대학생학술문화교류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초청 라운드테이블 -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n the 21st Century or Who Can Do Better?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민주통일 부문 수상

2024-2025 Annual Report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2025년 연구 및 사업

30	학술행사
54	통일학센터
70	평화학센터
90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95	교육 및 아웃리치
103	출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행사

- 국내학술회의
-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주제	개최년월
[제97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4년 5월 3일(금) 09:30~17:00
[국립대 공동학술회의] 2024 지역의 통일교육 쟁점과 확산 방안 학술 세미나 -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	2024년 5월 16일(목) 13:00~18:00
[서울대 통평원-통일보건의료학회 공동학술회의] 춘계학술대회: 감염병 대유행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2024년 6월 14일(금) 12:30~18:00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익숙한 미래? 한국국제정치의 새로운 상상력	2024년 6월 26일(수)~28일(금)
[제98차 국내학술회의] 2024 통일의식조사 -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2024년 10월 2일(수) 14:00~
[MZ세대의 통일의식] 출간 기념 북토크 - 최인아 책방	2024년 10월 8일 (화) 19:00~
[제99차 국내학술회의]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2024년 10월 10일(목) 14:00~17:40
[조선대-서울대-유라시아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러시아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	2024년 10월 11일(금)~12일(토)
2024 한-유럽 평화 플랫폼 -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유럽과 한국의 사례 비교	2024년 10월 29일(화) 13:10~18:00
[2024 호남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대격변의 국제정세 속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2024년 11월 8일(금) 13:30~18:00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광주 특별기획학술회의 -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	2025년 2월 21일(금) ~22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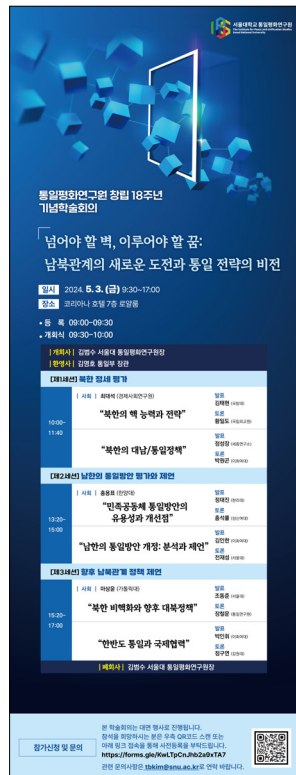
◆ [제97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일시: 2024년 5월 3일(금) 09:30~17:00
- 장소: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
- 주제: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에서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을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의 축사,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서 비롯된 급격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조망하고 새로운 통일 전략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개 회 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환 영 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제1세션: 북한 정세 평가	
사 회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발 표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김태현 (국방대)
토 론	황일도 (국립외교원)
발 표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정성장 (세종연구소)
토 론	박원곤 (이화여대)
제2세션: 남한의 통일방안 평가와 제언	
사 회	홍용표 (한양대)
발 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정대진 (한라대)
토 론	홍석률 (성신여대)
발 표	남한의 통일방안 개정: 분석과 제언-김인한 (이화여대)
토 론	전재성 (서울대)
제3세션: 향후 남북관계 정책 제언	
사 회	마상윤 (가톨릭대)
발 표	북한 비핵화와 향후 대북정책-조동준 (서울대)
토 론	장철운 (통일연구원)
발 표	한반도 통일과 국제협력-박인휘 (이화여대)
토 론	정구연 (강원대)
폐 회 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국립대 공동학술회의] 2024 지역의 통일교육 쟁점과 확산 방안 학술 세미나

-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

-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3:00~18:00
- 장소: 국립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 3층
- 주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경남통일교육센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프로그램	
환 영 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축 사	이기완 (국립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 경남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장보권 (부산여대,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장)
제1세션	
주제: 글로벌 안보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사 회	김범수 (서울대)
발 표	정한범 (국방대):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김태원 (통일연구원): 북한 안전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이기완 (국립창원대):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재고
토 론	문기홍 (국립부경대) 홍석훈 (국립창원대) 여현철 (국민대) 황기식 (동아대)

제2세션	
주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사 회	최희규 (국립창원대)
토 론	장보권 (부산여대) 이상빈 (국립창원대) 박상영 (한국교원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은정 (동아대)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병훈 (국립창원대)

폐 회

2024 지역의 통일교육 쟁점과 확산 방안 학술 세미나			
주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지역 통일교육 확산 방안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3:00~18:00			
장소: 국립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 3층			
시간	프로그램	주최	비고
13:00~13:30	등록		
13:30~13:45	환영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개회식
13:45~14:00	축사: 이기완 (국립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 경남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14:00~14:15	축사: 장보권 (부산여대,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장)		
14:15~15:30	제1세션 주제: 글로벌 안보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사회: 김범수 (서울대) 발표: 정한범 (국방대): 미국 대선 전망과 대외정책 김태원 (통일연구원): 북한 안전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이기완 (국립창원대):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재고 토론: 문기홍 (국립부경대), 홍석훈 (국립창원대), 여현철 (국민대), 황기식 (동아대)		
15:30~16:00	Coffee Break		
16:00~17:45	제2세션 주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의 통일교육 확산 방안 사회: 최희규 (국립창원대) 토론: 장보권 (부산여대), 이상빈 (국립창원대), 박상영 (한국교원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은정 (동아대),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병훈 (국립창원대)		라운드 테이블
17:45~18:00	폐 회		

◆ [서울대 통평원-통일보건의료학회 공동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

감염병 대유행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2:3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제1의학관 6층 강의실)
- 주제: 춘계학술대회: 감염병 대유행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프로그램	
개 회 사	윤석준 이사장 (통일보건의료학회)
기조 강연	주제: 보건안보와 한반도 생명공동체 연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감사패 전달 및 기념 촬영	
제1세션: 남북한 보건의료와 미래교육	
좌 장	김희숙 교수 (동남보건대)
발 표 1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분석과 대안 탐색-김상무 (동국대)
발 표 2	보건의료기반 대통일교육사업 운영과 평가-이도영 (창신대)
발 표 3	「통일과 간호」 교과목 운영사례-추상희 (연세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박형빈 (서울교육대) / 최순미 (창신대) / 전희원 (안산대)
제2세션: 감염병 대유행이 한반도 영양상태에 미친 영향	
좌 장	문진수 (서울대)
발 표 1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식생활 변화와 정책방향-김초일 (서울대)
발 표 2	코로나19 전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 및 영양실태-윤지현 (서울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오경원 (질병관리청) / 심재은 (대전대) / 안동환 (서울대)
제3세션: 감염병 대유행이 한반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좌 장	전우택 (연세대)
발 표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이해우 (강원대학교병원)
발 표 2	코로나19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김석주 (성균관대) / 전진용 (울산대학교병원) / 권용실 (가톨릭대)
폐 회 사	



◆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익숙한 미래? 한국국제정치의 새로운 상상력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28일(금)
- 장소: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 주제: 익숙한 미래? 한국국제정치의 새로운 상상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익숙한 미래? 한국국제정치의 새로운 상상력”에서 3개 세션을 참여하였다.



◆ [제98차 국내학술회의] 2024 통일의식조사 -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4:00~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
- 주제: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부상하는 분단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07년부터 지난 18년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제1부: 기초분석	
사 회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개 회 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 표 1	통일의식-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 표 2	북한인식-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 표 3	대북정책인식-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 표 4	북한이탈주민인식-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 표 5	주변국인식-황수환 (통일연구원)
토 론	안경모 (국방대) / 송영훈 (강원대)
제2부: 심화분석	
사 회	윤지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 표 1	총선과 통일의식 변화-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 표 2	Z세대의 통일회의론 분석-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 론	이상신 (통일연구원)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주 제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안정식 (SBS)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 김재한 (한림대)
폐 회	

2024 통일의식조사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	
제1부 기초분석	사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개회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1 통일인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북한이탈주민인식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5 주변국인식	황수환 (통일연구원)
토론	안경모 (국방대학교) / 송영훈 (강원대학교)
제2부 심화분석	사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표1 총선과 통일의식 변화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Z세대의 통일회의론 분석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이상신 (통일연구원)
제3부 종합토론	사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제: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주최: 안정식 (SBS)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 김재한 (한림대)	
17:50~18:00 폐회	



◆ [MZ세대의 통일의식] 출간 기념 북토크 - 최인아 책방

- 일시: 2024년 10월 8일 (화) 19:00~
- 장소: 최인아책방 선릉점
- 주제: MZ세대의 통일의식



◆ [제99차 국내학술회의]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14:00~17:40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
- 주제: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5시 40분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에서 한국 핵무장 여론의 실체와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두 차례의 실험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핵무장 찬성 여론의 동인, △자제 핵무장 시도에 따른 고통 감내의 정도,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한 선호, △미국 확장억제방식에 대한 선호 등을 검토하였다.

프로그램	
개 회 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세션: 한국인은 핵무장을 왜, 얼마만큼 원하는가?	
사 회	하영선 (서울대)
발 표 1	핵무장 여론은 합리적 선택인가? 심리적 편향인가?-정성철 (명지대)
발 표 2	핵무장 여론은 북핵대응인가? 국가 위상에 대한 열망인가?-정상미 (국립외교원)
발 표 3	핵무장의 부담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을까?-이경석 (인천대)
토 론	문재연 (한국일보) / 박주화 (통일연구원) /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제2세션: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사 회	사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 표 1	한미동맹 강화인가? 독자 대응인가?-정구연 (강원대)
발 표 2	자체 핵무장인가? 첨단 비핵무기체계인가?-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발 표 3	미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길 원하는가?-조동준 (서울대), 홍예림 (버지니아대)
토 론	이유정 (중앙일보) / 김민형 (경희대) /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조선대-서울대-유라시아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러시아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

-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12일(토)
- 장소: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2층 세미나실
- 주제: 러시아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

프로그램	
세션 1 주제: 푸틴집권 5기 대외정책 기조와 전망	
사 회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발 표 1	푸틴 5기 대외정책의 기조와 러시아의 중국, 남북한정책 관리-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
발 표 2	미·러 대립에서 촉발된 북극에서의 러시아 외교 정책 전환 동향-박종관 (조선대)
발 표 3	러중관계: 동향, 특징, 전망-이상준 (국민대)
토 론	김성진 (덕성여대) /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 / 서동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세션 2 주제: 러시아의 대외관계와 동북아 질서 재편	
사 회	김범수 (서울대)
발 표 1	북중러 3자 연대 전망과 대응 방안-장덕준 (국민대)
발 표 2	러북관계: 동향, 특징, 전망-장세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발 표 3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한러관계 동향과 전망-김정기 (유라시아정책연구원)
토 론	기광서 (조선대) / 이재훈 (조선대) / 노경덕 (서울대)
세션 3 주제: 종합토론 - 한반도·러시아 관계의 발전 전망	
좌 장	김현택 (前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토 론	참가자 전원



◆ 2024 한-유럽 평화 플랫폼 -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유럽과 한국의 사례 비교

-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3:1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9층 통일평화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유럽과 한국의 사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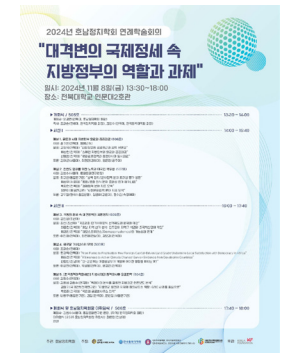
프로그램	
Keynote Speech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미래: 소련 사례를 중심으로-하용출 (위싱턴대 잭슨국제대학원)	
제1세션: 유럽의 사례	
사 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 표 1	독일 베를린의 협력사례와 시사점-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발 표 2	HELCOM 협력사례와 시사점-이상수 (스웨덴 인도주의대화(HD센터))
토 론	서재권 (부산대) /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제2세션: 한국의 사례	
사 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 표 1	지방외교를 활용한 '평화정착이론(TSP)' 조성방안-김형수 (단국대)
발 표 2	한반도 평화 실현: 강원도의 사례-송영훈 (강원대)
발 표 3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접경지역의 미래: 경기도의 역할을 중심으로-정대진 (한라대)
토 론	임은정 (국립공주대) / 정민승 (한국일보)
Round Table	
사 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재권 (부산대) /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 임은정 (국립공주대) / 정민승 (한국일보)	



2024 한반도 평화 지식교류 플랫폼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유럽과 한국의 사례 비교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3:1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9층 통일평화연구원 대회의실	
13:10~13:20	등록
13:20~13:50	Keynote Speech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미래: 소련 사례를 중심으로 하용출 (위싱턴대 잭슨국제대학원)
13:50~14:00	휴식
Session 1 유럽의 사례	
발표 1	독일 베를린의 협력사례와 시사점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발표 2	HELCOM 협력사례와 시사점 이상수 (스웨덴 인도주의대화(HD센터))
토론	서재권 (부산대) /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Session 2 한국의 사례	
발표 1	지방외교를 활용한 '평화정착이론(TSP)' 조성방안 김형수 (단국대)
발표 2	한반도 평화 실현: 강원도의 사례 송영훈 (강원대)
발표 3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접경지역의 미래: 경기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대진 (한라대)
토론	임은정 (국립공주대) / 정민승 (한국일보)
Round Table	
16:45~17:30	서재권 (부산대) /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 임은정 (국립공주대) / 정민승 (한국일보)

◆ [2024 호남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대격변의 국제정세 속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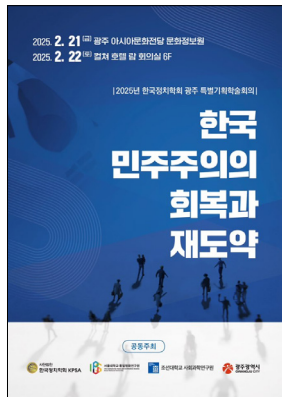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3:30~18:00
-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대2호관
- 주제: 대격변의 국제정세 속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주관: 호남정치학회
- 공동주최: 한국정치학회, 한국동북아학회, 국제개발협력원 지속가능발전센터
- 후원: Korea Foundation



프로그램	
개 회 식	개회사: 문경연 (전북대, 호남정치학 회장) 축 사: 조화순 (연세대,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형수 (단국대, 한국동북아학회 회장)
제1세션	
패널 1. 글로벌 시대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	
사 회	송기돈 (전북대, 명예교수)
발 표 1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와 지역 브랜딩-강정석 (전북대)
발 표 2	스페인 지방정부의 외교와 공공외교-이상현 (전북대)
발 표 3	문화교류협력과 중앙아시아 도시외교-신보람 (전북대)
토 론	김태균 (서울대) / 최현진 (경희대) / 임은정 (공주대)
패널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대국민 책무성	
사 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 표 1	남북 정치/군사협력 분야 효과성 평가 방안-최규빈 (통일연구원)
발 표 2	통일/평화 의식 분야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이성우 (서울대)
발 표 3	경제협력 분야 지표 모색-박지연 (전북대)
발 표 4	사회문화협력 분야 지표 모색-정은이 (통일연구원)
토 론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 정원희 (강원대) / 한수진 (숙명여대)
패널 3. 격동의 정세 속 대안탐색의 지방정치	
사 회	공진성 (조선대)
발 표 1	기초의회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의 문제와 대안-최 선 (조선대)
발 표 2	호남 지역 선거 분석: 민주당의 지역구 석권과 조국혁신당의 약진-최종현 (전북대)
발 표 3	데모스프루던스(Demosprudence)의 가능성과 한계-이경민 (전북대)
토 론	이진영 (전북대) / 최은정 (전남대) / 김보경 (전북대)
패널 4.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사 회	조화순 (연세대)
발 표 1	From Farms to Frustration: How Foreign Capital-Driven Land Grabs Undermine Local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Africa-한강욱 (전북대)
발 표 2	Willingness to Act on Climate Change: Survey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이승호 (전북대)
발 표 3	민-군 관계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진환민 (전남대)
토 론	이상현 (전북대) / 박성용 (전북대) / 문경연 (전북대)
패널 5. [한국동북아학회세션] 지방시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	
사 회	김형수 (단국대)
발 표 1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방외교 언론보도 분석-김용성-김형수 (단국대)
발 표 2	지방외교 발전과 지자체 해외사무소 역할: GBC 사례를 중심으로-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 표 3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전략-박형준 (건국대)
토 론	나용우 (통일연구원) / 김 일 (단국대) / 문인철 (서울연구원)
폐회식 및 호남정치학회장 이취임식	
폐 회 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자기] 한국정치학회 회장)
취 임 식	이취임식 [2025 호남정치학회장 취임사: 최은정 (전남대)]
만 찬	

◆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광주 특별기획학술회의 -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

- 일시: 2025년 2월 21일(금)~22일(토)
-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컬쳐호텔 램
- 주제: 한국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
- 공동주최: 한국정치학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광주광역시



| 국제학술회의 |

주제	개최년월
[IPUS-GWIKS 공동 웨비나] North Korea Economic Forum: Virtual Panel Discussion, Revisi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2024년 4월 23일(화) 22:00~23:30 (KST)
2024 제주포럼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식량, 영양, 자원	2024년 5월 29일(수)~ 5월 31일(금)
Revisi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rategic Responses Amo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2024년 6월 21일(목) 9:00~11:00 (KST)
2024 한-유럽 평화 플랫폼 - 베를린 국제학술회의	2024년 7월 10일(수)~ 7월 12일(금)
[공동국제학술회의] Roundtable o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ooperation and Research in North East Asia	2024년 8월 18일(일) 10:00~14:00
[IPUS-GWIKS 공동 웨비나] Cyber Shadows: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North Korea's Illicit Digital Operations	2024년 8월 29일(목) 22:00~23:30 (KST)
[APACPH 2024] The 55th Asia 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 Conference 2024	2024년 10월 24일(목) 14:00~18:00
[APCDM 2024] Warfare upcoming threatening and crisis scenario in Korean peninsula	2024년 11월 26일(화) 11:00~12:00
[IPUS-GWIKS 공동 웨비나] The Future of US Policy and the INDO-PACIFIC	2025년 1월 16일 13:00~16:30

◆ [IPUS-GWIKS 공동 웨비나] North Korea Economic Forum: Virtual Panel Discussion, Revisi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 일시: Tuesday, April 23, 2024 at 10:00~11:30 PM (KST)
- 장소: Zoom Webinar
- 주제: North Korea Economic Forum: Virtual Panel Discussion, Revisi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프로그램	
Welcoming Remarks	• Jisoo M. Kim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Bumsoo Ki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 Discussion	• Moderator—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Changing North Korea's Relations with Russia and Sanctions Violations—Jende Huang (Publisher, Prohibited Transactions) • Is China Cooperating Enough? Sang-sook Lee (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Impact of Changing Sanctions Landscap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Jong-min Lee (Economist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How Can We Fine-Tune the Sanctions Policy? Eric Penton-Voak OBE (Former Coordinator of the UN Panel of Experts for DPRK)

Q&A

◆ 2024 제주포럼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식량, 영양, 자원

- 일시: 2024년 5월 29일(수)~5월 31일(금)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3호
- 주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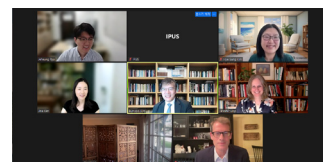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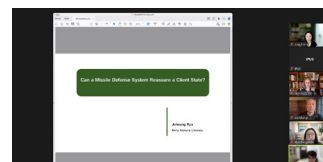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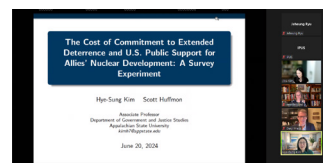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5월 29일(수)~5월 31일(금) 2박 3일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을 대주제로 진행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 31일(금) 오후 1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3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식량, 영양, 자원' 세션을 주관하였다.



◆ Revisi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rategic Responses Amo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 일시: Thursday, June 21, 2024 at 09:00~11:00 AM (KST)
- 장소: Zoom
- 주제: Revisi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rategic Responses Amo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lcome Remark	Bumsoo Kim, IPUS Director
Session 1 The Bargaining Theory of War and North Korea: Why the Peninsula is More Stable than the Conventional Wisdom Thinks	
Presenter	David Kang & Yuji Idomoto
Discussant	Jina Kim
Session 2 US-ROK Nuclear Sharing: A Middle Path to Increase Security on the Peninsula	
Presenter	Jennifer M. Lind & Daryl G. Press
Discussant	Hye-Sung Kim
Session 3 Strategic Risk Reduc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Allied Response Reassessment	
Presenter	Jina Kim
Discussant	Jeheung Ryu
Session 4 The Cost of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U.S. Public Support for Allies' Nuclear Development: A Survey Experiment	
Presenter	Hye-Sung Kim & Scott Huffmon
Discussant	Jennifer M. Lind & Daryl G. Press
Session 5 Can a Missile Defense System Reassure a Client State?	
Presenter	Jeheung Ryu
Discussant	David Kang & Yuji Idomoto
Group Discussion and Conclusion	



◆ 2024 한-유럽 평화 플랫폼 - 베를린 국제학술회의

- 일시: July 10th~12th, 2024
- 장소: Seminaris Campus Hotel Berlin, Weiterbildungszentrum der Freien University Berlin
- 주제: Korea Europe Peace Platform Berlin Forum 2024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of Free University of Berlin, Gyeonggi-do Province, KDI School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경기도, 베를린자유대와 공동으로 2024년 7월 10(수)~12일(금)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2024 한-유럽 평화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베를린자유대학교의 이은정 교수를 비롯해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 오거스트 프라데토(August Pardetto) 헬무트슈미트대학교 교수, 프랭크 엠(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발표 및 패널토론에서는 '냉전 시기 종전국의 역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전망과 유럽의 역할', '유럽의 지역안보공동체 구축 경험과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한 상태 평화의 넥서스-“무기없는 평화”를 위한 동베를린 지식인들의 선언’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 [공동국제학술회의] Roundtable o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ooperation and Research in North East Asia

- 일시: Sunday, August 18, 2024, 10:00~14:00PM
- 장소: Conference Room, School of Northeast Asia Studies, Shandong University
- 주제: Roundtable o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ooperation and Research in North East Asia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 School of Northeast Asia Studies(SNAS), Shandong University(SD)

Welcome Remarks	• Bi Yingda (Associate Director, SNAS, Shandong University) • Bumsoo Kim (Director,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ator	Tae Gyun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NU)
Roundtable Panelist	• Bumsoo Kim (Director, IPUS at SNU) • Ho Beom Kwon (Dean & Professor, School of Dentistry, SNU) • Jong-Il Kim (Director & Professor, Genomic Medicine Institute, College of Medicine, SNU) • Bi Yingda (Associate Director & Professor, SNAS at SD) • Liu Baoquan (Professor, SNAS at SD) • Yu Wanying (Assistant Professor, SNAS at SD)
Lunch / Closing 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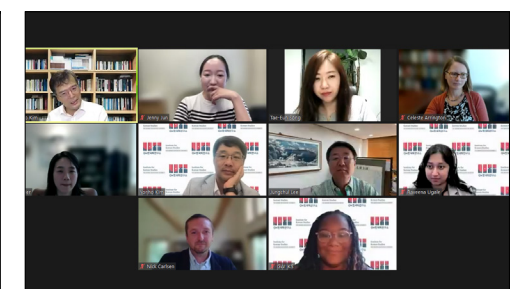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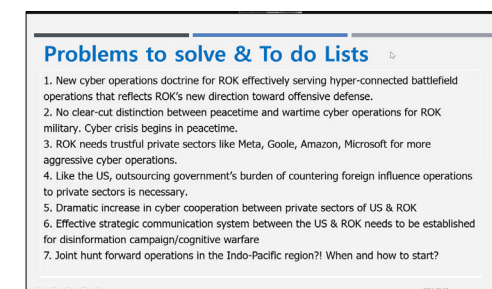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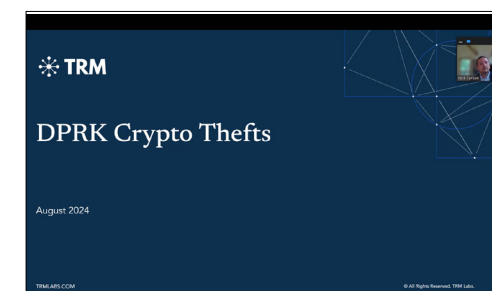


◆ [IPUS-GWIKS 공동 웨비나] Cyber Shadows: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North Korea's Illicit Digital Operations

- 일시: Thursday, August 29, 2024 at 10:00-11:30 PM (KST)
- 장소: Zoom Webinar
- 주제: Cyber Shadows: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North Korea's Illicit Digital Operations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elcome Remarks	• Celeste Arrington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Bumsoo Ki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ator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peakers	North Korea's Cryptocurrency Heist & Cyber Espionage • Insun Her (Counselor, Republic of Korea Mission to the UN. Former member of UN Panel of Experts on DPRK) • Nick Carlsen (Senior Investigator, TRM Labs) Changing Cybersecurity Policy and US-ROK Cooperation • Tae-Eun Song (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Jenny Jun (Assistant Professor,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Q&A



◆ [APACPH 2024] The 55th Asia 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 Conference 2024

- 일시: 2024년 10월 24일(목) 14:00~18:00
- 장소: Bexco, Convention Hall #102
- 주제: Disaster & Unification Seminar
- Host: Center for Health & Unification of Korea,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Ajou Institute of Unification Health Studies, Association of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 Disaster Seminar		
Moderator	Sun Joo Ka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Korea
Co-Chair	Jun Wook Kwon, Professor Gilbert Burnha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Korea Bl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Speaker	Gilbert Burnham, Professor	Bl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Review of crisis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disaster medical response system Il-ung Hwang, Clinical Professor,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Myungken Lee, Professor	Kosin University, Korea
Discussant	Ayako Kohno, Associate Professor I Lin HSU, Attending Physicians Agustin Kusumayati,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yoto University, Japa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Hospital, Taiwan Universitas Indonesia /Immediate President of APACPH, Indonesia
Session 2: Unification Seminar		
Moderator	Jin Won Noh, Professor	Division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Co-Chair	Seok-Jun Yoon, Professor Dyan Ellen Mazurana, Professor	Association of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 Korea Friedman School, Tufts University, USA
Speaker	Issues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tween SDGs Implementation and Health Care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wasoon Nam, General Manager,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Korea	
	Disaster-Related Laws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s Jung Im Le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Korea	
	Why sex, age and more is needed to inform humanitarian response Dyan Ellen Mazurana, Professor, Friedman School, Tufts University, USA	
Discussant	Joshua Han Jihyun Yoon, Professor Jin Won Noh, Professor	MEDAIR Korea,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Division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APCDM 2024] Warfare Upcoming Threatening and Crisis Scenario in Korean Peninsula

- 일시: 2024년 11월 26일 (화) 11:00~12:00
- 장소: Crystal Ballroom B, The K Hotel
- 주제: Warfare upcoming threatening and crisis scenario in Korean peninsula

Day 2 – November 26 (Tuesday)

Chair	- Hwang Il-wo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 Ji-hyun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peakers	Warfare upcoming threatening and crisis scenario of Korean peninsula Lee Jong-jin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lanning for preparedness for warfare disaster medical response in Korea Kim Min-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Warfare disaster medical response education and training Kim Tae-ha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Korea)



◆ [IPUS-GWIKS 공동 웨비나] The Future of US Policy and the INDO-PACIFIC

- 일시: January 16, 2025, 1:00~4:30PM
- 장소: State Room, 7th Floor, Elliott School,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주제: The Future of US Policy and the INDO-PACIFIC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ast Asian National Resource Center, Taiwan Education & Research Program of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Studies of the Ritsumeikan University

Panel 1: Grand Strategy

- Youngjoo Jang, Visiting Research Fellow, Center for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Studies, Ritsumeikan University
- Robert Sutter, Professor of Pract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Drew Arveseth, Directo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Mongolia,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 Bumsoo Ki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 2: Emerging Challenges

- Inwook Kim,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Affairs, Sungkyunkwan University
- Ilaria Mazzocco, Deputy Director and Senior Fellow, Trustee Chair in Chinese Business and Economic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Prashanth Parameswaran, Global Fellow, The Wilson Center; CEO and Founder, ASEAN Wonk Group; Senior Columnist, *The Diplomat*
- Ann Kowalewski, Senior Non-Resident Fellow, The Global Taiwan Institute
- Tashi Rabgey, Research Professor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24-2025년 연구 및 사업

통일학센터

- 통일학포럼
- 통일학세미나

| 통일학포럼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북한-통일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통일학포럼(IPUS Unification Studies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는 통일학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에 출범한 <통일정책포럼>을 계승한 것으로, 정책 뿐만 아니라 통일학, 평화학 관련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기 위해 2021년 현재 이름으로 재출범했다. 통일학포럼은 북한-통일문제, 국제정세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융복합적, 다학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한 학문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총 9차례의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99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 일시: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이라는 주제로 제99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9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장철운 연구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 군사력 및 군사정책과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그 변화상을 설명하였다.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군사적으로 자립하고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대규모의 육군과 함대를 유지하고, 소위 '정치군사 혁명적 무력'의 개념을 강조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이러한 군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하려 했고, 또한 이 시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는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이후에도 다수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군사적 변화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비하며, 국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북한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사정책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핵탄두 투발 수단의 다중화 등 핵무기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군사적 우선순위가 일부 변경된다. 이전에는 대규모 육군과 함대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사이버전, 특수작전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정책은 더욱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와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결론부에서 결국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력의 기본골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군사 대치 지속과 한미연합군의 존재에 대한 위협 인식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변화도 기본적으로 선대 정권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 이미 한국에게 압도당하였고 이를 양적 측면의 증강으로 극복하려고 해왔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주력하는 핵전력도 재래식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도 꾸준히 한국을 압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미시적인 군사 및 무기 변화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군사변화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음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제99차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사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99차 | 통일학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일시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의 

연사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참가신청 |

이번 포럼은 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QR코드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제100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2>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

- 일시: 2024년 5월 2일 목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이라는 주제로 제100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0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2008년 6자회담의 무산과 김정일의 사망 이후에 가속화된 핵개발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병진노선과 함께 대미관계 개선도 시도했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결렬되면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채택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불가피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 이는 사실상의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강조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초기에 결속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다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북한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비판하고, 남북관계의 비중을 축소한다. 한편 북한은 신냉전 담론을 호명하면서, 미중 전략경쟁과 미래 관계 악화 등의 국제 정세를 활용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전략적 공간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추구하고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군은 북핵으로 인해 북한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핵무력정책법에서도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전,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북한의 대남 관계 비중의 축소는 최근 '두 국가 관계' 언급으로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최근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쟁 시 남한을 점령하고 평정하여 영토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련된 기구들을 모두 정리하고 개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북한은 북한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협상을 위한 허세일 수도 있고, 공세로의 전환일 수도 있으나, 북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변화에 대한 중단기 과제로서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체계 호환성이 높고,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주요 국가 중 하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적 협력도 가능성이 있다. 중러북 협력의 확대: 북중러의 협력을 신냉전 구도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 현 질서는 이슈에 따라 갈등의 경계가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국익을 위해 유연하고 주도적 외교를 실천하여 대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대외/대북전략의

균형: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어젠다로 만들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국내 합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사 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 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National Unity

제100차 | 통일학포럼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

일 시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연 사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 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참가신청
이번 포럼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 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제101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3>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

-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를 모시고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101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1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전영선 건국대 HK연구교수는 최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을 설명하였다.

2019년 이전,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과 '세계화'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국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의 시범 공연을 통해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였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 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체적 입장에서 북한의 음악예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그러나 2019년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과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으로 인해 북한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대외정책을 수정하며 대외 환경 개선보다 반제국주의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및 대한민국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2023년 6월 25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에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기 '우리 국가제일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2017년 11월 30일 화성 15호 시험발사를 보도한 로동신문 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2018년 잡지 『조선여성』을 통해 확산되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체제 위기로 발전하였다. 국경 봉쇄로 대외 무역이 단절되었고, 보건 위기로 인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상황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였다. 김정은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훌륭하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이후 북한은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관광 등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였다. 2024년은 조중친선의 해로 지정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24년 3월 21일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본질로서 집단주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대 교양 사업을 적극적인 대중운동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강조하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인민이 오직 당중앙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해나가게 하는 정신적 힘"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여러 사상 통제법을 제정하였다.

2023년 1월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 비규범적인 언어의 유입과 유포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 법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제2조 정의)이라고 정의하며, “괴리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제1조)기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법기풍’은 사회주의 미풍양속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국풍으로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상향의 비전을 구체화하며 농촌 및 산간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20개의 지방 군을 선정하여 10년 동안 발전시키는 20×10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남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고 대남 투쟁 원칙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4년 1월 1일, 내각 외무성 주도로 대남부문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남 기구를 일체 정리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김정은은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꿀볼건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며,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이 예상된다.

프로그램

사	회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발	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Social Unification

| 제101차 | 통일학포럼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연사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사회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참가신청 |
이번 포럼은 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QR코드](#)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제102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4> 북한의 국가와 법: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평가와 전망

-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국가와 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모시고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북한의 국가와 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2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2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북한의 법치주의 변천과 논쟁점을 설명하였다.

2017년 11월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선포하며, 국가의 존엄성과 체제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7년 9월의 제6차 핵실험과 수소폭탄 시험 이후의 국제적 제재 속에서 북한의 자력갱생과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제도”와 같은 개념을 강조하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틀은 북한의 법치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북한에서의 법치주의는 서구적 의미의 법치(rule of law)와는 차이가 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국가와 당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시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법률 연구가 확대되었고, 법률 자체가 독립된 연구 주제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따라 법은 국가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법제화 작업이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법률 제정 및 개정 빈도에서도 드러난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98개의 신규 법률이 제정되었고, 224개의 법률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정되었다. 이는 법률 체계의 정교화와 국가의 통치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김정은 시대의 법제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인민 복지와 인민 통제. 인민 복지 측면에서는 교육, 보건, 국토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 규범과 보편적 가치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인민 통제 측면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기밀보호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 통제와 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법을 통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고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법치는 인민의 요구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체제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도, 법의 악용 가능성과 보편적 법치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법치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이는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와는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법치국가의 외형을 갖추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법치주의와 국가 제도의 발전은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인정 투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복잡한 과정이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법제화 작업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체제의 안정성과 통치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그 가능성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사 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 표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제102차 | 통일학포럼

북한의 국가와 법: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의 평가와 전망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연 사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사 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참가신청 |
이번 포럼은 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QR코드**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제103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5>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

- 일시: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이라는 주제로 제103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3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향방에 대해 논하였다.

안경모 교수는 특히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으로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설명했다. 북한은 2018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병진노선으로 대변되는 균형전략에서 편승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좌초되었다. 이후 북한은 수년간의 과도기적 고민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한 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재등장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신냉전의 구도 속에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의 논리'와 '능력과 국가 변수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력갱생을 통한 부국강병 추구'를 목표로 하는 균형전략이다.

이러한 균형 전략 중 외적 균형의 일환으로서 북방삼각관계도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인 친선관계였던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그 관계를 긴밀히 한 러시아와의 협력도 편승전략에서 균형전략으로의 변화와 함께 비추어 보아야 한다. 대남 전략도 마찬가지다. 2018년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이 주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하면서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었고, 작년 말 제시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 변화의 결과 나타난 두 국가론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동독도 통일 이전에 두 국가론을 제시했었지만, 그것이 통일을 막지는 못했다며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양과 질은 남북과 비교할 수 없었으며, 동서독의 통일은 데탕트라는 국제적 조건에서 가능했지만, 현재 남북은 그것과 판이한 국제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경모 교수는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0년의 분단 속에서 분명히 갈등과 대결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화와 협력의 긍정적 국면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과연 우리가 70년을 돌아 다시 적대의 길로 갈 것인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과거 대북정책의 틀을 넘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례로 서수민 교수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언론의 북한 보도를 분석했는데, '1) 북한 관련 영국 보도의 주요 테마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2) 위협의 대상이자 적인 북한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3) 엘리트 언론과 타블로이드 언론의 보도 양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라는 세 가지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그 결과 "irrational, crazy, wield"와 같은 악마화되고 과장된 표현이 나타났고, 부정적인 보도는 2013-14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엘리트 신문은 보다 덜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타블로이드 신문은 자국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서수민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서수민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질 전환이 일어나면서 정치, 안보 일변도 기사에서 스포츠, 경제, 문화 등 깊이 있고 다각적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잦은 오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해진 외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사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

제103차 |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 - 5>
70년의 분단, 30년의 위기,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반도

일시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연사
안경모 (국방대 교수)

사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참가신청
 이번 포럼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제104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6>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04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4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시장화 요소를 수용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했다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 방법은 산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부문에서 '포전담당제', 대외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개발구' 정책을 포함하며, 자율성 확대와 시장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이 정책은 본질적 체제 전환보다는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은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강화한다. 2020년과 2022년에는 무역법 개정과 곡물 거래의 중앙화 시도 등으로 통제 체계를 보강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계획경제로의 회귀보다는 비공식경제를 제도화하여 국가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경제는 소폭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핵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유례없는 강도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다. 특히 광업과 중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된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크게 제한하여 실질 소득과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 제재가 비공식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최근 연구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추정치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공식 시장 부문이 입은 손실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북한은 과거부터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해왔다. 북한은 전자제품과 일상용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석탄과 같은 광물 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다. 대북 제재로 인해 무역 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북한은 가발, 속눈썹 등 인모가공 제품을 대체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노동자 파견, 국제기구의 원조, 송금 등 외화 유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대중 무역이 다시 회복되면서 외화 공급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최근 쟁점인 북-러 협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전후 북극 인력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외화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운송비와 통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무기 외에 추가적인 수출 품목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북한 경제에 단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사 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 표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 Peace

| 제104차 |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 - 6〉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일 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의 

연 사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사 회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 참가신청 |

이번 포럼은 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QR코드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제105차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7〉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

-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로 제105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5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별 중심의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계층, 중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되는 사회 구조는 출신 성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김정은 정권 역시 이러한 사회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핵심계층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발전과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 즉 중산층의 부상을 가져오며 전통적 사회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중산층은 구(舊) 중산층과 신(新) 중산층으로 나뉜다. 구 중산층은 개인 노동과 생산수단 소유를 기반으로 비교적 부유하게 생활했던 계층으로, 과거의 중농이나 도시 소시민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신 중산층은 시장화 과정과 경제개혁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계층이다. 이들은 공식 직업과 비공식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경제적 지위를 쌓고 있다. 신 중산층은 크게 권력형, 전문가형, 상업형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권력형 중산층은 정치적 자본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계층이며, 전문가형 중산층은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 직업군으로 구성된다. 상업형 중산층은 주로 도소매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상업적 성공을 기반으로 형성된 계층이다.

중산층의 성장은 북한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는 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은 고급 가전제품, 수입 식료품, 패션 등 다양한 소비를 통해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은 중산층의 소비와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화 정책을 통해 국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광명망'으로 불리는 국가 내부망을 구축하고, 이동통신망을 대중화하면서 과학기술 교육과 원격교육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보화는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과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와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별 가구의 인터넷 접근률은 여전히 낮으며,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여전히 다수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성장은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이동 제한과 계층 간 갈등,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는 중산층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군발전법'과 '농촌발전법'을 제정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자원 부족, 낮은 기술 수준은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의 불균형적 발전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저해하며, 이는 북한 사회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저하시킨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중산층은 시장 경제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은 경제적 구매력과 문화적 소비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층 간 갈등과 정보 격차, 지역 불균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안정은 지속적으로 제약될 것이다.

프로그램

- 사 회**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발 표**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105차 | 통일학포럼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 - 7>

북한의 중산층 부상과 사회변동

일 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연 사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참가신청 |

이번 포럼은 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 QR코드 또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QR코드**

문의사항은 담당자 kwondh92@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통일학 세미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학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두 차례의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81차 통일학 세미나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결과보고 세미나

-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9시~22시
- 장소: Zoom 온라인 *비공개
- 사회: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이정철(서울대)
- 발표: 김택민(통일평화연구원), 임수진(국가안전전략연구원), 조현주(통일평화연구원), 최은영(통일평화연구원)
- 토론: 안경모(국방대), 정은미(통일연구원), 송현진(이화여대), 장철운(통일연구원), 고광영(평화나눔연구소), 강혜석(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신호숙(북한대학원대학교),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승호(인천대)



제81차 통일학 세미나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결과보고 세미나

-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9:00~22:00
- 사회: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발표: 김택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임수진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토론: 안경모 (국방대), 정은미 (통일연구원), 송현진 (이화여대), 장철운 (통일연구원), 고광영 (평화나눔연구소),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신호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승호 (인천대)

제82차 통일학 세미나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연구 현안 진단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15시~17시
- 장소: 통일평화연구원 대회의실 (교육협력동 9층) + Zoom 온라인 *비공개
- 사회: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이정철(서울대)
- 토론 및 자문: 정은미(통일연구원), 최지영(통일연구원), 황진태(동국대)



제82차 통일학 세미나 :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연구 현안 진단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15:00~17:00
- 사회: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토론 및 자문: 정은미(통일연구원), 최지영(통일연구원), 황진태(동국대)

2024-2025년 연구 및 사업

평화학센터

- 평화학포럼
- 평화학세미나

| 평화학포럼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연구와 관련하여 저명한 연구자 및 시민사회,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평화 의제로 활동 중인 연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평화학포럼(IPUS Peace Studies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평화학포럼은 평화 이론, 실천, 정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며 글로벌과 아시아 평화학, 동서양의 평화학을 논함으로써 평화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총 8차례의 평화학포럼을 개최했다.

◆ [제22차 평화학포럼]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일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17:30-19: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라는 대주제 하에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제22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될 평화학포럼 일정을 소개한 후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장주영 박사는 한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우선 장주영 박사는 국내 이주민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소개했다. 장주영 박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총인구의 3.3%인 169만 명 정도"이며, 이는 "총인구의 0.3%인 15만 명 정도였던 1998년과 비교하여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통계에서 인용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 기준 총인구의 4.4%인 약 226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고 설명했고, "법무부의 통계와 상이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한국에서 출생한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자의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이주민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장기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임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출신성분이 다양화하고 성 및 연령별 구조에서 도농의 차이가 과거와 달리 차이내고 있음"을 소개하며 장주영 박사는 "학교 내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개념의 변천을 설명하며 "이주민이 증가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속에서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논의가 '동화(assimilation)'에서 '통합(integration)'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통합 개념이나 목적, 측정 등에 있어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는 Spencer & Charlsy (2021)의 논문을 소개하며 "통합의 과정보다 당위성과 바람직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만을 통합이 필요한 타자'로 문제화하고, 단일화된 이상적 구조로서의 사회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관계성에 따른 가치, 태도, 행동,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적응(acculturation)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Spencer와 Charlsy(2021)가 주장한 '과정으로서의 통합'에 주목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영역과 정체성에서 개인과 사회가 변해가는 다방향적, 공간적, 초국적, 임시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주영 박사는 “통합의 반의어가 ‘붕괴(disintegration)’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나 개인 및 사회의 변화 과정의 부재”라는 저자의 설명에 주목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주영 박사는 이어 Bourhis et al.(1997)이 제시한 ‘이민통합 정책과 쌍방향적 문화적응 전략의 결합’ 모델을 설명하며 이민정책 및 통합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고, 1991년 산업연수제도 및 보건사회부 「농어촌 총각과 중국고포여성 성혼사업 계획」, 1993년 난민협약 비준 및 발효 등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추진해온 이주민 통합 정책의 변천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장주영 박사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이주민 ‘통합’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고 강조하며 2008년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의 한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장주영 박사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글로벌 수준 부합’이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히며 “정책 목표 안에 있는 사회 통합의 실질적인 정책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이주민을 동등한 입장에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문을 품게 하는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눈에 띈다”며 ‘이주민 가사노동자에 대한 동일 임금 지불 문제’를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으로 꼽았고, “이주민의 사회구성원 자격 우선순위 기준과 관련하여 혼란이 존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을 가장 눈에 띄는 차별의 영역으로 꼽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가족초청의 제한과 허용’과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주영 박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이주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는 응답은 줄어들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인용하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선주민-이주민 사회통합을 향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주영 박사는 “다문화에서 ‘다양성’으로 내러티브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주민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주민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점차 넓혀 이들의 취약계층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 담론 중심의 정책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추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로그램

좌 장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발 표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년도 1학기 평화학포럼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참가신청
본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강연 참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각 포럼 QR 코드 또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차 평화학포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
일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17:30-19:00
발표: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제23차 평화학포럼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
일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17:00-18:30
발표: 최문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좌장: 이노은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제24차 평화학포럼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
일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7:00-18:30
발표: 이소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좌장: 박서연 (안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25차 평화학포럼
아프간 난민과 함께하는 올산의 1년
일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7:00-18:30
발표: 김명화 (시애틀 기자)
좌장: 김부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제26차 평화학포럼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튼튼 한글학교를 사례로
일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7:00-18:30
발표: 이영구 (뉴튼튼 한글학교 교장)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 메일 junhjo@snu.ac.kr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3차 평화학포럼]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

- 일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라는 대주제 하에 최윤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를 모시고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라는 주제로 제23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노은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최윤영 교수는 독일 통일 이후 이주민에 대한 테러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담아낸 문학의 사례를 통해 실제 개인들, 특히 이주민들이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겪어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최윤영 교수는 "2022년 기준 독일 내 이주배경주민의 비율이 총인구수의 28.7%에 달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그중에서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반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반"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영 교수는 "이러한 배경에는 서독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필요했던 노동력을 가스트 아르바이터(Gastarbeiter)를 통해 채웠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터키가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윤영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지역은 주로 구동독지역인데, 외국인 거주 비율이 낮은 지역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 즉 '외국인 없는 외국인 증오'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영 교수는 1991년 호이어스베르다(Hoyerswerda) 테러, 1992년 로슈토크(Rostock) 해바라기집 테러사건, 뮐른(Möln) 테러 사건 등 통일 직후 일어난 외국인 테러를 설명하며 "해당 사건은 모두 서독 지역에서 발생했고, 극우파뿐 아니라 중산층도 가담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 벽이 터키인들의 머리를 덮었다"는 구절을 소개하며 "자퍼 세노작(Z. Şenocak)이 밝혔듯 독일 통일로 인해 그동안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졌던 '독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되살아나며 이민자들은 비독일인으로 치부되었고, 이민자들에 대한 테러 등 많은 차별과 혐오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국인 테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두고 최윤영 교수는 "1) 통일 이후 일자리, 사회보장, 범죄율 등의 독일 사회 내부의 문제를 외국인의 탓으로 전가했던 점과 2) 새로운 민족주의 대두로 인한 반외국인 정서가 형성되었던 점"으로 정리했고, 빠르게 진행되었던 다문화 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한발 늦게 시행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윤영 교수는 독일의 외국인 정책을 다루며 서독의 외국인 정책은 "이주민 노동자를 3년 주기로 교체하는 순환원칙(Rotationsprinzip)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통합 원리(Integration sprinzip)로 정책의 초점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독의 이민정책은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 상호경제협력조항을 통해 폴란드, 헝가리, 모잠비크, 쿠바, 베트남, 북한 등의 노동자를 적극 유입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 이후 독일은 새로운 난민규제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에 들어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에게 독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독일이 이민국임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일관되고 미래를 기획하는 외국인 정책이 부재하고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윤영 교수는 통일독일의 이주민을 다룬 여러 문학작품을 소개하며 그 시대를 겪어내었던 이민자 개인의 삶을 조망하고자 했다. 우선 최윤영 교수는 Hung Gurst 라는 베트남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이민자로서 바라본

통일독일의 사회의 단면을 조망했고, 문화적 차이로 작가가 겪었던 차별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최윤영 교수는 터키계 작가 외즈다마(E. S. Özdamar)와 세노작(Z. Şenocak)의 작품을 소개했고, 특히 전후와 과거 극복을 다룬 세노작의 글을 통해 터키에서 독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독일 사회에 적응해 가려고 했던 개인의 삶을 풀어내었다. 또한 노년에 들어 한민족을 강조했던 빌리 브란트를 통렬히 비판했던 유대인 작가 막심 빌러(M. Biller)의 작품을 소개하며 "민족주의가 강조되며 다문화라는 가치가 후퇴하고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블라디미르 카미너(Wladimir Kaminer)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주했던 유대인의 삶을 조망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윤영 교수는 이민자 2세의 삶을 다룬 작품도 소개했는데, 베를린에서 자라 독일인으로서는 정체성을 형성한 터키계 2세가 독일 통일 이후 이방인으로 내몰리는 내용을 설명하며 통일 이후 이민자 2세가 겪었던 혼란과 고통, 차별 등을 생생히 풀어내어 전달했다.

프로그램

- 좌 장 이노은 (인천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발 표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년도 1학기 평화학포럼

·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참가신청
본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ZOOM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강연 참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각 포럼 QR 코드 또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차 평화학포럼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

일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최윤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좌장: 이노은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제24차 평화학포럼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

일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이소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좌장: 박서연 (연세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조교수)

제25차 평화학포럼
아프리카 난민과 함께한 1년

일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김명희 (시시인 기자)
좌장: 김부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제26차 평화학포럼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올트 한글학교를 사례로

일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이향진 (뉴올트 한글학교 교장)
좌장: 최윤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2차 평화학포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플러다임 변화

일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최후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전민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메일 junhip@snu.ac.kr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5차 평화학포럼]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아프간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

- 일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아프간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라는 대주제 하에 김영화 시사IN 기사를 모시고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프간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이라는 주제로 제25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부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김영화 기자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주와 이민이 갈등의 중심이 되고 공존의 노후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울산 동구의 이주민 지역 통합 사례를 살펴봄에 이려한 사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우선 김영화 기자는 이주민과 관련한 취재를 할 당시의 경험을 뒤돌아보며 "이주민과 이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다양하게 확인했고, 해당 문제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화 기자는 "한국은 2023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4.89%를 기록하며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2018년 예멘 난민 입국과 2021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등의 사례와 같이 '정치의 부재'로 인해 이주민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첨예화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영화 기자는 "아프간 난민에 대한 포용적 메시지를 내비쳤던故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화 기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울산 정착의 경우도 초기에는 앞선 사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였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초기의 반발에 비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영화 기자는 "이는 현대중공업과 울산 동구 다문화 센터, 울산교육청 세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김영화 기자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한 소통을 지속했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갔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통학/통근 버스를 지원했고, 다문화 센터는 한국 생활 적응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영화 기자는 "각각의 주체가 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다문화와 관련한 갈등과 불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화 기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통계를 인용하며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하락 중이지만,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나타내는 '교류행동 의지' 수치에서 청소년이 성인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울산의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화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진 작가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나 이민자에 대해 평가할 때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또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화 기자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동구의 1년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며 "울산의 사례가 단 한 번의 기적이나 미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는 우선 "이주 배경 인구 자녀의 학업 중도 이탈률이 점점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언어로 인한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울산의 사례와 같이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하는 등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화 기자는 "갈등 자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며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포용의 메시지'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치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기자는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게 울산의 경험은 '미리 겪어본 미래'라고 밝히며 "'낯선 데서 배움이 일어난다'는故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말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좌 장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발 표	김영화 (시사IN 기자)	

2024년 1학기 평화학포럼
·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참가신청
 본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강연 참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각 포럼 QR 코드 또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차 평화학포럼
아프간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
 일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김영화 (시사IN 기자)
 좌장: 김부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제26차 평화학포럼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
 일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이창규 (뉴몰든 한글학교 교장)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2차 평화학포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
 일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이북개발학과 교수)

제23차 평화학포럼
통일 이후 통일시대의 민족주의와 이주민 혐오
 일시: 2024년 6월 29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최은영 (서울대학교 국제통일학과 교수)
 좌장: 이노은 (한신대학교 국제통일학과 교수)

제24차 평화학포럼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와 이주민 혐오
 일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7:00-18:30
 연사: 이소영 (고려대학교 국제통일학과 교수)
 좌장: 박서연 (한신대학교 국제통일학과 교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 메일: junhjo@snu.ac.kr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6차 평화학포럼]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

- 일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라는 대주제 하에 이향규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 교장을 모시고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라는 주제로 제26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이향규 박사는 뉴몰든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뉴몰든 지역 내 한글학교에서 진행된 '분단 극복 실험'과 이로부터 얻은 교훈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우선 이향규 박사는 영국 뉴몰든 지역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리틀 코리아'로 불리지만, "이민 역사,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에 단일한 공동체가 아니며, 북한주민의 공동체는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향규 박사는 "2004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2006년 EU의 북한인권법이 각각 제정되며 탈남 현상을 촉진했고, 2007부터 2008년 사이에 정점을 찍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2008년 영국 정부가 북한 난민 신청시 한국정부의 지문 조화를 시작하며 한때 난민청 거부율이 2009년 80.1%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향규 박사는 "무엇이 이들을 서구 사회에 정착하도록 만들었고, 한국의 탈북민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를 소개하며 '뉴몰든에서 남북한 주민의 관계'를 "1) '코리아'이라는 소수자로 묶이는 제3의 공간, 2) 유동적인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3) 정주민으로서의 탈북난민의 지위"라는 3가지의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수정, 이유영(2014)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향규 박사는 "남북한 주민이 어우러져 사는 곳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북한 난민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뉴몰든 거리와 학교, 교회, 일터 등 남북한 주민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지점"이라고 밝힌 이향규 박사는 "가령 통일주장, 재영한민노인회의 공동 장례, 서예모임, 한국전쟁 관련 행사 공동 참석 등에서와 같이, 북한의 문화적 요소의 가치에 주목해주고 생애 어려움에서는 상부상조를, 개인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향규 박사는 "여전히 갈등의 요소는 존재한다"고 밝히며 "교민 사회 내 단체의 잦은 이합집산과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잠복해 있던 이념적 갈등의 표출, 갈등 상황에서의 자존심 문제 등은 긴장 속에서의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향규 박사는 런던 한겨레학교부터 뉴몰든 한글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향규 박사는 "탈북민의 주도로 출범한 런던 한겨레학교는 인근의 런던 한국학교와의 중첩 문제로 한글학교 등록에 실패하고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하며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교재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교육과정을 정비하며 학생 수가 급증했지만, 여러 이유로 런던한겨레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향규 박사는 "2021년 4월 남한 출신으로는 최초로 런던한겨레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며 '정치가 아닌 교육을 고민하겠다'라고 다짐했고, "그중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에 이향규 박사는 "분단 극복 실험의 일환으로써 영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평화의 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소개하며 "이는 영국이 제3의 공간으로서 공간이자 다문화가 익숙한 곳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가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을 회고하며, 이향규 박사는 "남북 주민 개인의 갈등은 언제나 집단의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며 '교육의 자율성'과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2023년 6월, 이향규 박사는 '뉴몰든 한글학교'를 설립하며 "남북한 통일이나 평화와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한민족의 공통적 유산, 즉 '언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향규 박사는 "교육의 주안점을 '한글학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한글 교육'으로 옮기게 되었고, 특히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경험시키기 위해 시나 전래동화, 노랫말이 예쁜 동요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투표를 통해 학생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한 이향규 박사는 "이 학교의 가치는 좋은 학교를 남북한 출신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학교는 실험이나 프로젝트가 아닌 '일상'으로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향규 박사는 "'남북한 문화를 공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한국형 교육과정을 추구하되,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다양한 출신 구성원이 참여토록 하는 '질 좋은 접촉공간'으로서 학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향규 박사는 "집단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계적 배분을 지양한 채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고자 하며, 일상과 문화, 습관을 교류함으로써 남북한을 넘어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사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써 학교는 '질 좋은 접촉공간'으로 거듭나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며, "지난 날의 노력과 좌절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는 다짐을 공유했다.

프로그램

좌 장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 표	이향규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 교장)

2024년도 평화학포럼
*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참가신청
본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와 Zoom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강의 참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각 포럼 QR 코드 또는 구글을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차 평화학포럼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
일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17:00-18:30
장소: 이향규 (뉴몰든 한글학교 교장)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2차 평화학포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불리다짐 변화
일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17:00-18:30
장소: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23차 평화학포럼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안락주의와 이주민의 함의
일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17:00-18:30
장소: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24차 평화학포럼
한국사회의 안락주의와 이주민의 함의
일시: 2024년 8월 19일 수요일 17:00-18:30
장소: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25차 평화학포럼
이탈리아의 안락주의와 이주민의 함의
일시: 2024년 8월 26일 수요일 17:00-18:30
장소: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제28차 평화학포럼]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를 모시고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로 제28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백지운 교수는 반세기 이상 공적 서사의 주변을 배회하던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관점)'이 최근 대중의 집단 기억으로 귀환한 경과와 의미를 중국의 영화, 드라마, 문학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백 교수는 "중국은 1954년 헌법을 만들 때 '항미원조 전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였지만, 1975년 수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라고 설명하며 "1980년대 이후 교과서에서는 항미원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다가 2000년대 들어 국가지도자의 기념 담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진핑 집권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기리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파간다 수단은 영화"라고 설명하며 "주목할 점은 1980년대 이전 시기까지 국공내전에 관한 영화는 활발히 제작되었던 것에 비해 당시 항미원조 관련 영화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교수는 "그러다 2010년대에 들어 조용히 해금되기 시작했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는 강력한 대중 교양 수단이 등장하며 항미원조 전쟁 관련 자료가 다양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때 채집한 구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훗날 항미원조의 국가 서사가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백 교수는 "2020년대는 이러한 국가 서사가 전면적으로 귀환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항미원조 전쟁을 다룬 여러 영화 중 <상감령>(1956)과 <영웅적인 아들딸>(1964), <장진호의 수문교>(2022)를 소개하며 "혁명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영화에서 그리는 영웅의 상이 점차 바뀌어 왔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백 교수는 "저격능선-삼각고지 전투를 다룬 <상감령>에서는 '적의 토치카를 격파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황지광(黃繼光)이라는 소년 통신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당시 인민일보 기사에서는 황지광을 '마트로스프식 영웅'으로 일컬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백 교수는 "뒤이은 영화 <영웅적인 아들딸>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는 이름 없는 영웅 왕청과 그의 여동생 왕팡의 이야기로 전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 현대문학사의 거장이 혁명에 참가하지 않았던 아나키스트 작가 '바진'의 중편소설 '단원'(1961)이 원작"이라고 소개한 백 교수는 "지금까지도 항미원조 전쟁에 대한 영화와 드라마에는 이 소설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백 교수는 "이 소설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에 참가하며 대내적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인 '보가위국(保家衛國)'(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다)에 대해 탐문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고, "어떻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병사가 일순 산처럼 거대한 초인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소설 원작 속 숨은 주인공 '류정창'이 아닌 '왕청'으로 대체하였다"라고 설명하며 그 이유를 "소설 속에서 자학적으로 그려지는 영웅의 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혁명적 영웅의 상으로 교체하기 위함"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지운 교수는 2022년에 개봉했던 <장진호의 수문교>라는 영화를 소개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 시대의 영웅은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를 영웅으로 묘사하여 '공산주의적 신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내향적 서사를 그리고자 했다"라고 소개했다. 백 교수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영웅을 '전량적 영웅'으로 묘사함으로써 공적 서사의 행간에 부유하는 애환, 비판, 회한 등 불순한 정동의 잔재를 소거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고, "이를 통해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의 공적 서사를 '승리의 전쟁'으로 치환함과 동시에

시진핑 시대의 '신시대'를 준비하고자 했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백지운 교수는 2020년 개봉한 <금강천(The Sacrifice)> 내에 나타난 독특한 플롯에 주목했다. 백 교수는 "원경에서 근경, 미경으로 이어지는 플롯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딩케르크>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법으로, 원경에서 바라보는 '송고한 희생'에 현미경을 댔을 때 드러나는 생생한 미시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위대한 순간은 단순히 '영웅적 희생'이라는 공적 서사로만 환원되지 않은 여러 소쇄한 요소들의 집합이라는 점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백 교수는 "사사로운 감정과 우발적 요소 등 소인물의 시선으로 그간의 영웅 서사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 교수는 "비록 <금강천>이 중국 영화의 한계상 반전 영화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강한 애국 서사를 강조하는 데 항미원조 전쟁이 활용되고 있는 시진핑 시대의 현실적 조건 아래에서도 '반전 서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눈여겨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프로그램

좌 장	백원담 (성공회대 석좌교수)
발 표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제29차 평화학포럼]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 일시: 2025년 1월 9일 목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한모니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를 모시고 2025년 1월 9일 목요일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라는 주제로 제29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한모니가 교수는 정전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DMZ가 언제, 왜, 어떻게 구상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강연의 서두에서 한 교수는 DMZ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경험에 주목하였다. "DMZ는 많은 이들에게 남북 분단의 경계선이자 최전방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으며, 군 복무의 고생담과 무용담으로 기억되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한 교수는, 그와 동시에 이곳이 "BBC가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묘사화된 지역 중 하나로 보도할 만큼 고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존재하는 장소"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DMZ는 단순히 군사 공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공간"이기도 하며, 이러한 DMZ의 이중성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질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한 교수는 "이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의 결과물로서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구상과 제도적 협상, 정책적 실천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복합적 공간"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어 한 교수는 DMZ라는 공간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일반에게는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실제 DMZ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 연구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접경 시군 지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곧 DMZ 연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피상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후 강연은 본격적으로 DMZ 개념의 역사적 기원으로 넘어갔다. 한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의 시작을 1953년 정전협정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1950년 10월, 중국군의 참전 직후 영국 외무부가 한반도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 장관 어니스트 베빈(Ernest Bevin)이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위험을 우려한 정세 판단이 작용했고, 그가 제안한 비무장지대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한반도 국경 일대에 북한 정부와 무장 해제된 북한군이 임시 행정을 맡는 형태'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영국의 제안은 미국과 유엔, 그리고 중국, 북한 측에 전달되었으나 당시 맥아더는 "북한 지역의 일부라도 넘겨준다면 이는 자유세계가 당하는 최대의 패배"라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주미대사 장면 역시 "한국 정부의 영토와 이익을 희생하는 제안"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설치 구상이 점차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한 교수는 덧붙였다.

정전회담이 본격화된 1951년 7월 이후, DMZ의 위치와 범위, 관리 주체 등에 대한 협상이 구체화되었다. 북측 측은 38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10km 후퇴한 지역을 DMZ로 설정하고, "6·25 이전 상태로 민정을 복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유엔군 측은 보다 북쪽에 위치한 20마일(약 32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주장하였다. 결국 "군사적 현실을 반영해 정전협정 체결 시점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씩 후퇴하여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을 획정하고 쌍방이 2km씩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며, 이는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13항에서는 72시간 내 군사 자산의 철수와 45일간의 위험물 제거(지뢰, 철조망 등)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측 사령관이 보고하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 교수는 "1953년 11월 3일, 제86차 군정위 비서장회의에서 유엔군과 북측 측이 군사분계선 표식 설치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1292개의 표식물로 구성된 '점의 연속체'라는 점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감시소조(Joint Observer Team)의 위반 조사 활동 및 판문점 인근 정비 절차 등 구체적 실천 사례도 다루었다.

강연 말미에서 한 교수는 1960년대 이후 DMZ의 실질적 무장화가 진전되었음을 언급하며,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MZ는 사실상 무장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1970년대 초반부터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들이 남북 및 국제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DMZ는 단선적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여파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정치적 갈등, 그리고 생태적 변화와 평화 담론이 축적된 복합적 구성물"이라며, "전쟁을 멈추고 정전을 유지하며 평화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DMZ의 역사적 층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 좌 장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발 표 한모니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2024년도 2학기 평화학포럼

참가신청
본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강연 참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각 포럼 QR 코드 또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차 평화학포럼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일시: 2025년 1월 9일 목요일 16:00-17:30
발표: 한모니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좌장: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제27차 평화학포럼
유엔과 북한인권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17:00-18:30
발표: 백태윤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좌장: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제28차 평화학포럼
항미월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18:00-17:30
발표: 백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좌장: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중앙중국학과 교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메일 junhaja@snou.ac.kr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학세미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인문학 연구의 지평 확대와 교육-연구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평화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평화학세미나는 그동안 평화연구를 선도해 온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오랜 경험과 성과를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기획되었다. 2024년도에는 총 6차례의 평화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회차	일시	주제	내용
제55차	2024년 5월 17일 (금) 18:30-20:00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관계	• 발표: 천해성(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前 통일부 차관)
제56차	2024년 5월 25일 (토) 16:00-18:00	사이버 안보와 외교 전략	• 사회: 이해정(중앙대) • 발표: 쉬만스카 알리나(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종진(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 토론: 송태은(국립외교원), 장성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57차	2024년 10월 21일 (월) 14:00-15:30	Humanitarian Response to Today's Emergencies	• 좌장: 노진원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부) • 연사: Dyan E. Mazurana(Tufts University)
제58차	2024년 10월 22일 (화) 10:30-12:00	Thinking about the response to modern urban warfare	• 좌장: 황일웅(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발표: Gilbert M. Burnham(Th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제59차	2024년 11월 15일 (금) 19:00-20:30	UN에서 본 북한문제	• 발표: 조현(前 UN대사), 권태면(前 북한대사)
제60차	2025년 2월 11일 (화) 12:00~18:00	동북아 핵 재난과 방사선 대응: 정책, 의료, 사회적 대응	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철폐 연구소 공동세미나



제60차 IPUS 평화학세미나

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철폐연구소 공동세미나 - 동북아 핵 재난과 방사선 대응: 정책, 의료, 사회적 대응 -

- 일시: 2025. 02. 11. 12: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채리룸

2024-2025년 연구 및 사업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서울대학교는 정부 및 사회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인 통일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사업명칭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으로 변경해 평화, 인권, 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구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년과제를 선정, 2024년부터는 사업형 과제를 신설하여 통일 대비 지식확충, 인재양성 및 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다자협력 영역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4년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기관명	사업 책임자	사업명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지성태	식량안보 관점의 북한 신안보 위기와 남북 협력
여성연구소	신혜란	젠더적 측면에서 본 탈북 이주 지형 변화: 탈북여성의 돌봄노동, 비공식성, 임파워먼트, 다층적 정체성과 문화정치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승환	평화통일 대비 접경지역(DMZ) 생물다양성(곤충, 버섯류) 현황 파악 및 한반도 통일명 제시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남북 기후변화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
간호과학연구소	김진형	통일 후 북한 간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호대학	방경숙	북한이탈주민 간호대학생의 학교적응경험 및 교수자의 지도경험 연구
건설환경공학부	김용일	야간 위성영상과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도시활력도 분석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권영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북한도시의 바람길 및 수변환경 개선방향 연구 : 3차원 디지털트윈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대학원	한정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아시아, 한반도 정책의 항방
농업생명과학대학	안동환	북한 농촌의 공간 구조 분석: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임정빈	위성 및 기상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농업생산 추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대학	강정원	북한 민족종교의 변화와 현재
아시아연구소	김태균	북한과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맺기
아시아연구소	김백영	신냉전 시기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과 그 효과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박형동	위성탐사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광산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탈탄소화 전략 연구
인문대학	이동원	북한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연구 - '지방발전 20x10 정책' 입안을 위한 15년의 준비과정 분석(2008-2023)
자유전공학부	조준희	韓-印 다문화·평화교육 교류 프로젝트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한반도 및 동북아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연구 기반 구축
통일치의학협력센터	한동현	생애초기 시절의 탈북 경험이 남한사회에서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소	최창용	김정은 정권 안정성 변동 분석
해양연구소	강헌중	북한 결핵 해결을 위한 천연소재 발굴
헌법통일법센터	이효원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절차
환경계획연구소	성종상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 기반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 민북마을 유산 가치 탐색 -대성동 마을을 중심으로-
환경계획연구소	장수은	위성영상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북한 도로교통체계 연구
환경계획연구소	김태형	북한이탈주민의 자이실현 및 사회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규명 및 정책 대안 발굴

2025년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기관명	사업 책임자	사업명
건설환경공학부	김용일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의 재난 회복탄력성 분석: 홍수 피해를 중심으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박용성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동해안 연안 침식 분석
교육종합연구원	모경환	시민교육을 위한 평화교육의 재구성: 통일 담론을 넘어 사회적 갈등 해결로
국제대학원	한정훈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2기 집행위원회의 안보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전망
국제대학원	이현태	북러관계 강화가 북중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지성태	체제전환국의 농민조직 발전이 북한 농촌개혁에 주는 시사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안동환	북한 농촌지역 공간구조와 지역경제 분석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임정빈	FAO-GAEZ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 농업생태기후대 변화와 잠재 농업생산성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광수	북한 지역 지속 가능 농업 지원을 위한 옥수수 및 알팔파 재배 적합 지역 전망
미래전략연구센터	김상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핵-AI 역량 연구
보건대학원	유승현	건강증진 관점에서 본 북한의 공중보건과 과제
사범대학	신윤정	청년 대상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개발 및 다중양식(multi-modal) 자료 기반 효과성 검증
아시아연구소	김태균	아프리카-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북한 인권 인식에 대한 연구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박형동	한반도 열에너지 활용방안
인문대학	권오영	단군릉의 발견과 북한 정권의 통일정책 변화
인문대학	방민호	남북 작가 및 대중이 함께하는 문학 창작 워크숍
치의학대학원	명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역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치과 의료진의 사회적 지지 및 인식 차이의 규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의 학문적 기반 마련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AI 기반 북한이탈주민 구강건강 개선 사업: e음헬스+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북한 보건의료 최신 현황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일의료 교과서 개정 기반 수립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남북 기후변화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3차년도)
한국행정연구소	박순애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
헌법·통일법센터	이효원	남북한의 헌법제·개정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규범적 연구
환경계획연구소	장수은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간선도로의 교통량 추정
환경계획연구소	윤순진	북한 가정의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가전제품과 햇빛판 보급 추세를 중심으로
환경계획연구소	임저스틴 희준	북한 도심공간의 열쾌적성 분석과 기후 적응 전략 연구

●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4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는 2024년 11월 27일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20동과 221동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21개 기관 단위에서 25개 사업팀이 참여하였고, 각 사업팀이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으로 확대된 명칭만큼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역량 강화를 위해 교내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2024-2025년 연구 및 사업

교육 및 아웃리치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 제23기 통일아카데미
- 제12기 평화아카데미
- 제2기 최고지도자 과정
- 제4회 시민평화학교
- 제4회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8개 지역거점국립대(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세부사업으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취지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던 국립대학들이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해 왔던 통일·평화 교육과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모색
-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이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세부사업

1. “한반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 공동연구
 - 공동 연구팀은 UN ESCAP,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 UN ECOSOC 산하 High Level Political Forum(HLPF)와 전문가 미팅을 진행
 - 2019년 : SDGs의 Peace (목표 16)와 Partnership (목표 17) 템플릿 작성
 - 2020년 : SDGs 목표 중 보건의료, 교육, 산림녹화 세부 영역을 선정하여 연구
 - 2021년 : SDGs 목표 중 빈곤, 젠더, 경제성장, 불평등을 중심으로 연구
 - 2022년 : SDGs의 남은 목표인 빈곤, 물, 인프라, 도시, 불평등, 기후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SDGs의 모든 목표를 분석하고 템플릿 작성 완료
2. “평화실현을 위한 갈등 해결의 정치” 공동연구
 - 이념 갈등, 분배 갈등, 문화적 갈등, 무력 분쟁, 무기개발 경쟁 등 한국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
3. “평화와 민주주의” 공동연구
 -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적·국내적으로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체제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
4.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구성 및 운영
 -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토목공학, 교육학, 과학, 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강사진을 구성하여 각 대학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5.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 네트워크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연구 및 포럼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

사업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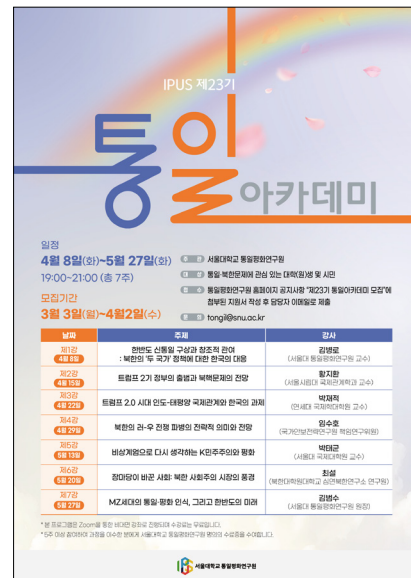
날짜	내용
2023.11.17.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공동학술회의: 신냉전 시기 대학 통일평화 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3.08.16.-19.	202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여름캠프
2022.11.20.-21.	부산대학교 제주 평화답사 개최
2022.10.04.	서울대학교 제10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22.08.26.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라운드 테이블)
2022.08.17.-19.	제3회 동해평화학교 개최
2022.05.06.-12.04.	전북대학교 호남권역 평화통일아카데미 개최
2022.04.05.	서울대학교 제21기 통일아카데미 개최
2022.02.18.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공동학술회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2021.10.05.	서울대학교 제9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21.08.25.-27.	제2회 동해평화학교 개최
2021.04.06.	서울대학교 제20기 통일아카데미 개최
2021.02.0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연차총회 및 학술회의: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2022.10.06.	서울대학교 제8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20.07.14.	제주대학교〈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참여
2020.05.30.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학술회의: “한반도 SDGs 지표설정과 개발전략”
2020.02.1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협의체 연차 총회
2020.02.1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학술회의: “한반도 SDGs 지표설정과 남북협력의 과제”
2020.02.04.	UNICEF MICS, UN HLPF, 주유엔한국대표부 협력 논의
2020.01.19.	UN ESCAP 북한 SDGs 현황 및 협력 논의
2019.10.01.	서울대학교 제7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19.09.30.	전북대학교 평화아카데미 개최
2019.09.26.	부산대학교 평화아카데미 개최
2019.06.25.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출범 학술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공헌 방향 모색”
2019.06.01.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사업 개시
2019.05.24.	운영회의 개최

《통일아카데미》

◆ 제23기 통일아카데미

2007년 첫 출범하여 올해 23화째를 맞는 IPUS 통일아카데미는 북한 및 통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과 대학(원)생 및 일반시민들의 북한·통일에 대한 정책, 학술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된 제23기 통일아카데미는 북한의 최근 대남정책 변화와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한 국제관계 접근법 및 북핵문제의 전망, 시장을 통해 살펴보는 북한 경제, 젊은 세대의 통일·평화 인식 변화 등 다채로운 주제를 선정해 수강생들과 함께했다.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은 총 96명으로 그중 59명이 수료하였다. 수강생은 대학생 20%, 대학원생 28%, 일반시민 52%로 학업 중인 학생과 일반시민이 골고루 분포되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계열이 61%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 15%, 이공계 13%, 평화·통일학이 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시민의 경우 직업별로 전문직 종사 30%, 종교·시민단체 14%, 기타 56% 등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강생의 연령대는 20대가 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30%, 30대와 40대가 각각 20%, 13%로 그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

- 1강 한반도 신통일 구상과 창조적 관여: 북한의 '두 국가'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2강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북핵문제의 전망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 3강 트럼프 2.0 시대 인도-태평양 국제관계와 한국의 과제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 4강 북한의 라-우전쟁 파병의 전략적 의미와 전망
임수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 5강 비상계엄으로 다시 생각하는 K민주주의와 평화
박태군 (서울대 국제대학원)
- 6강 장마당이 바꾼 사회: 북한 사회주의 시장의 풍경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7강 MZ세대의 통일·평화 인식,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평화아카데미》

◆ 제12기 평화아카데미

2013년 첫 출범하여 올해 12화째를 맞는 IPUS 평화아카데미는 평화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 및 소통을 위해 학생, 일반대중, 그리고 현장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년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된 제12기 평화아카데미는 '글로벌사우스와 대안적 평화 레짐'을 테마로 글로벌사우스의 역사적 근원과 부상,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과 대응, 한반도의 평화 비전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좌를 진행하였다.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은 총 72명으로 그중 44명이 수료하였다. 수강생은 대학생 26%, 대학원생 25%, 일반시민 41%, 기타 8% 등과 같이 다양한 직업군이 골고루 분포되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전공 영역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계열이 62%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 24%, 이공계 8%, 평화·통일학 및 기타 계열이 각 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시민의 경우 직업별로 전문직 종사 44%, 종교·시민단체 39%, 기타 17% 등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강생의 연령대는 20대가 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32%, 30대와 40대가 각각 15%, 14%로 그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

- 1강 평화학의 관점에서 보는 글로벌사우스론
김태군 (서울대 국제대학원)
- 2강 디링크(De-Linking)과 평화아시아: 글로벌사우스의 역사맥락과 복수성 정치
백원담 (성공회대 석좌교수)
- 3강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글로벌사우스론
정성진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 4강 '트리컨티넨탈 회의'와 글로벌사우스 급진주의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 5강 글로벌사우스의 부상과 중국의 대응: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 6강 북한의 불력불가담(non-alignment) 활동과
글로벌사우스 인식
김도민 (강원대 역사교육과)
- 7강 '신냉전 너머'의 한반도 평화 비전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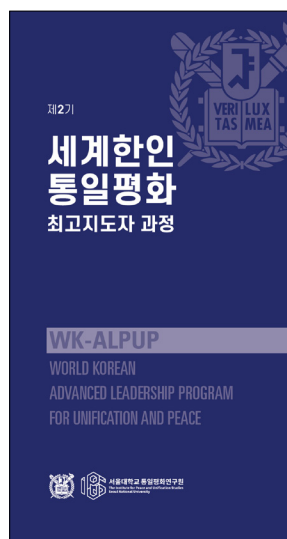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 제2기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국내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 개설된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수강할 수 있도록 대면강좌와 비대면강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재외동포 사회의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세계 한인 사회와 소통하고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왔다.

2024년 시작된 제2기 과정의 강의는 대전환기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평화와 남북관계, 민족 정체성과 세계시민, 문화예술과 재외동포 등의 주제 하에 총 30 회로 구성되었다. 2024년 9월 26~30일과 202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제1차, 제2차 대면 집중강좌 기간 동안 모든 수강생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숙식하며 강의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대면 집중강좌의 마지막 날인 2025년 2월 5일(수)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의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제2기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막을 내렸다.

졸업식에서는 총 39명의 수강생 중 36명의 수강생이 80% 이상의 출석률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서를 받았다. 제2기 수강생 중 90% 이상이 제1차, 제2차 대면 집중강좌와 비대면 강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졸업식에서는 제2기 원우회의 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시흥아카데미》

2020년 시흥캠퍼스 이전에 준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시흥시와 협력 하에 <시흥아카데미>를 출범하였다. <시흥아카데미>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축적된 통일·평화 교육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1) 시흥시민의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평화감수성 및 통일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2) 대학과 소속 지방자치체 시민 간 직접 소통을 통해 지식·일상, 연구·실천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확립하고, 3) 대학의 대사회 서비스 및 소속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아카데미>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흥시민평화학교>(1학기),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시흥리더스아카데미>(2학기)로 구성된다.

◆ <제4회 시흥시민평화학교> 기후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24년 4월-5월 "기후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제4회 <시흥 시민평화학교>는 시민 눈높이 강연을 7주간 제공하여 본격적으로 평화에 다가서고자 했다. 평화는 인류 모두가 나누는 가치이지만, 그저 당연하거나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흥 시민평화학교>에서는 평화와 연결된 주제 중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흥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제4회 <시흥 시민평화학교>는 시흥시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 기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다양한 기후 이슈들을 두루 포괄하는 주제의 강연을 제공했다.



◆ <제4회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 전쟁과 폭력의 시대: 세계와 한반도를 돌아보다

2024년 10월-11월에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 세계와 한반도를 돌아보다”라는 주제 아래 제4회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팬데믹과 전쟁을 겪으며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현재,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격변하는 세계 각국을 들여다보며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고 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4-2025년 연구 및 사업

출판

- 통일학 시리즈
- AJP
- 통일과 평화
-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
- 한-미 정책 브리프 (ROK-US POLICY BRIEF)

통일학시리즈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통일학시리즈》는 <통일학총서>, <통일학신서>, <통일학연구> 3종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통일학총서> 32권, <통일학신서> 7권, <통일학연구> 63권을 출간하였다.

통일학총서 학제적 종합학문으로서 통일학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학술시리즈

통일학신서 북한연구 및 통일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에 대한 학제적 연구시리즈

통일학연구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조사>, <북한주민의식조사> 등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기초조사결과 및 통일·북한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시리즈

《통일학시리즈》 2007~2024년 발간 목록

《통일학총서》

-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김세균 외 7인 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박삼욱 외 3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7)
-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이순형 외 3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7)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1』 (윤여창 외 6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2』 (김정욱 외 6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남북통합지수, 1989~2007』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이연숙 외 3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장달중 외 2인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네트워크 세계정치』 (김상배·하영선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이운죽·이인정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 『다플랫폼 다채널 시대의 통일방송』 (윤석민 외 4인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기초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 (임홍배·송태수·정병기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탈북인의 공사적 관계와 의사소통』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권영일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이효원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양문수·김병연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통일농업 성장보고서』 (최정남·김완배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정근식·정은미·강동완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독일통일과 여성』 (한정숙·홍찬숙·이재원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박경숙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3)
-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과 권위인식』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2014)
-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권재일 저, 2014)

-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관』 (강원택·이재철·조진만·한정택·김새미 저, 2015)
-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이순형·최연실·진미정 저, 2015)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정진화·손상희 저, 2015)
- 『북한의 체육과 여가』 (나영일·현주·안지호·신영진·진현주·성제훈 저, 2016)
-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 (김병연·정승호 저, 2015)
- 『북한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형태』 (김석주·이왕재·박상만·이혜원·최희란 저, 2015)
- 『북한의 수학 연구 현황 분석』 (김도한·신정선 저, 2016)
-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정근식·강성현 저, 2016)
- 『통일의료_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신희영·이혜원·안경수·안형순·임아영·전지은·최소영 저, 2017)

《통일학신서》

-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이승훈·홍두승 저, 서울대 출판부, 2007)
- 『통일이후의 문학교육』 (김대행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북한의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우심지도 작성』 (최진웅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임현진, 정영철, 서울대 출판부, 2008)
-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 『막힌 길 돌아서 가다: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한신갑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3)
-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최윤영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통일학연구》

- 『2007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김병조·서호철·은기수·정은미 저, 2007)
-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저, 2007)
- 『북한-중국간 사회 경제적 연결망의 구조』 (김병로·신상진·장경섭·정은미·조은희 저, 2008)
- 『2008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영호·정은미 저, 2008)
-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Schwekendiek, Daniel, 2009)
- 『2009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정란·정은미·이상신 저, 2009)
- 『2010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박정란·정은미·이상신 저, 2010)
-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저, 2011)
-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엘리트 정책 안정성』 (박명규·전현준 외 4인 저, 2011)
- 『2011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강원택·정은미·이상신·박정란 저, 2011)
- 『2012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송영훈·이수정·장용석 저, 2012)
- 『연성북합통일론』 (박명규·전재성 외 6인 저, 2012)
- 『북한국제화 2017』 (박명규·전재성·김병연·장용석·송영훈 저, 2013)

-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저, 2013)
- 『2013 통일익식조사』 (박명규·김병로·송영훈·장용석·정은미 저, 2013)
- 『북한주민 통일익식 2008~2013 :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 (송영훈·김병로·박명규 저, 2014)
- 『북한사회변동 2012~2013 :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저, 2014)
- 『2014 통일익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김병조·송영훈·장용석·정은미 저, 2014)
- 『북한주민통일익식 2014』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저, 2015)
- 『북한사회변동 2014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장용석·정은미·박명규 저, 2015)
- 『2015 통일익식조사』 (박명규·정은미·김병로·장용석·최규빈·김병조·강원택·황정미 저, 2016)
-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 (김병로·김병연·박명규 외 지음, 2015)
- 『북한주민 통일익식 2015』 (정은미·김병로·박명규·최규빈 저, 2016)
-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서보혁 저, 2016)
-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정근식 저, 2016)
-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민 저, 2016)
- 『2016 남북통합지수』 (정근식·김병연·김병로·정은미·장용석·이종민·김경민·안소연 저, 2016)
- 『2016 통일익식조사』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저, 2017)
- 『북한주민통일익식 2016』 (김병로·정동준·정근식·천경호·최규빈·황창현 저, 2017)
-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정보화·사회분화』 (장용석·정은미·김경민 저, 2017)
- 『전환기 통일평화정책 대토론: 청년이 묻고 원로가 답하다』 (정세현·윤영관·송민순·홍석현·김태영 저, 2017)
-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정보화·사회분화』 (장용석·정은미·김경민 저, 2017)
- 『2016 통일익식조사』 영문판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저, 2017)
- 『중국 속 북한이미지』 (박명규·백지운·이정훈·주윤정·김란·김성은·이성현·박선영 저, 2017)
- 『2017 남북통합지수』 (조동준·김병연·천자현·김학재·안소연·이종민·김경민 저, 2017)
-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정근식·조성은·천자현·왕정미·조용신 저, 2018)
- 『북한주민통일익식 2017』 (정동준·천경호·정근식·서보혁·조동준·문인철·이정욱 저, 2018)
- 『2017 통일익식조사』 (정동준·김선·김희정·정근식·문인철·송영훈·조동준·천자현·황정미·이정욱·임수진 저, 2018)
- 『2018 통일익식조사』 (정동준·김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욱 저, 2019)
- 『북한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천경호·김일한·조성은·최경화·임경훈, 조용신 저, 2019)
- 『2019 통일익식조사』 (김학재·강채연·김범수·김병로·김희정·이성우·최규빈·임경훈·조용신 저, 2020)
- 『북한주민통일익식 2019』 (김학재·김병로·문인철·엄현숙·조동준·천경호·임경훈·이정욱 저, 2020)
- 『2019 남북통합지수』 (안동환·천경호·김병연·김학재·이종민·조용신·황창현 저, 2020)
- 『2020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학재·김희정·박원호·이종민·최규빈·임경훈·최현정 저, 2021)

- 『2020 북한주민 통일익식』 (김학재·엄현숙·문인철·김병로·천경호·조동준·임경훈·최현정 저, 2021)
- 『2020 북한사회변동: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김학재·정은미·이종민·박상민·이혜원·김유연·최은정·임경훈·최현정 저, 2021)
- 『2020 남북통합지수』 (김범수·김병연·김학재·이경수·조용신·김유연·최현정 저, 2021)
- 『2021 남북통합지수』 (김범수·김병연·김학재·이경수·조용신·김민지·권지애 저, 2021)
- 『2021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병연·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최현정 저, 2022)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김유연·박상민·이혜원·송원준·이종민·정은미·이정철, 2022)
-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익식』 (김병로·김학재·송원준·최은영·이정철 저, 2022)
- 『2022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김민지 저, 2022)
- 『2022 남북통합지수』 (김병연·김병로·김학재·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3)
- 『2021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병연·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최현정 저, 2022)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김유연·박상민·이혜원·송원준·이종민·정은미·이정철, 2022)
-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익식』 (김병로·김학재·송원준·최은영·이정철 저, 2022)
- 『2022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김민지 저, 2022)
- 『2022 남북통합지수』 (김병연·김병로·김학재·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3)
- 『2023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조용신·조현주·김민지 저, 2023)
- 『2023 남북통합지수』 (김병로·김병연·김학재·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4)
- 『2024 통일익식조사』 (김범수·김병로·장용석·최은영·황수환·이성우·김택빈·김민지 저, 2024)
- 『2024 남북통합지수』 (김병로·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2] 2024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장용석·최은영·황수환·이성우·김택빈·김민지 저, 2024)



서장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

제7장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결장

부록

통일, 북한, 남북관계에 대한 2024년도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 책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3] 2024 남북통합지수

(김병로·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5)



제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2. 정치

3. 사회문화

제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2. 영역별 지수

3. 종합

제3장 남북통합지수: 2010-2023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함으로써 체계적 모델을 구축하여 통일을 예측 가능한 과제로 실재화한 책이다. 크게 구조통합지수, 의식통합지수, 남북통합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학술지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AJP)*

본 연구원은 2013년 5월 아시아 최초의 평화학 전문 국제학술저널 AJP를 창간하였다.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발행되는 AJP는 본 연구원이 발신하는 ‘한반도발 평화학’의 학술적 가능성을 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한편, 세계 평화학의 의미 있는 성과를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JP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초의 평화학 전문 국제학술저널이다. AJP는 평화인문학의 문제의식을 세계로 발신하는 한편 세계 평화학의 의미 있는 성과를 수렴하는 토대로, 본 연구단 연구학술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라모스 호르타 전 티모르 대통령 및 평화관련 국제학회인 ISA와 IPRA의 역대 회장들(Harvey Starr, Etel Solingen과 T.V. Paul)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하여 우수논문의 투고를 유도하여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와 Jose Ramos-Horta 전 Timor Lests 대통령의 논문을 실는 등 우수논문 유치성과를 보였다. 논문 심사과정은 물론 출판 결정된 논문들의 생산과정에서도 국제적이며 프로페셔널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현재 KCI등재지이자 SCOPUS 등재지이다.

1) Vol.12 No. 1 (2024.05)



Special Issue Gender, (In)Securities, and North Korean Migration: Survival and Resilience in the Face of Violence

Special Issue Editor: Eunyoung Christina Choi

Introduction: Gender, (In)Securities, and North Korean Migration
Eunyoung Christina Choi

Citizenship Redefined: China's Hukou System Reform and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and Their Children in China
Kang Seo

Transnational Mothering and North Korean Women's Strategies of Survival: Impact of China's One-Child Policy and Hukou on Migration and Kinship
Joowon Park

North Korean Female Entrepreneurs in South Korea: Empowerment through Informality and Resilience in Post-Cold War Geopolitics
HaeRan Shin

Health-Seeking Pattern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r Mental Health: Evidence from Nationwide Health Insurance Data
HyeSeung Wee, Jongmin Lee, and Seungho Jung

Framing Identity and Gender in Public Discourse: A Corpus Analysis of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n-Hee Lee and Beomil Kang

The End of Feminized Migration?: Gendering Violent Borders and Geographies of North Korean Migration from the Arduous March to the COVID-19 Era
Eunyoung Christina Choi

2) Vol.12 No. 2 (2024.11)



Research Article

Sino-American Rapprochement and China's Dilemma in Dealing with the Korean Peninsula Issue (1971-1976)

Zhihua Shen and Yangzi Lin

China's Holistic Approaches to Security: A Text-Mining Analysis of Shifting Priorities in COVID-19 Responses

Xiru Zhao and Yuji Uesugi

Cultural and Rhetorical Violence in Cambodia-Focused Anti-Trafficking Films

Bryon Lippincott

Ethnic Politics, Political Security, and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Non-Interference Principle within ASEAN

Wen Zha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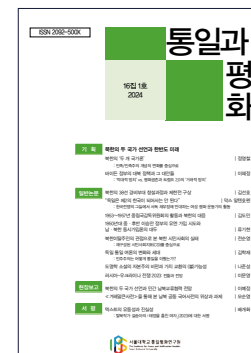
Recent Trends in Pro-government Militias in Africa: A Useful Tool or a Threat?

Lucie Konečná

국내학술지 『통일과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학술지 <통일과 평화>(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를 2009년 6월부터 연 2회 발행해왔고, 2024년 4월부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하고 있다. 「통일과 평화」는 21세기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성할 핵심 키워드인 '통일'과 '평화' 관련 연구의 심화, 다양성 강화, 학문적 소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일과 평화」는 1)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 각 분야 연구,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2) 인간/자연/사회를 둘러싼 제반 폭력과 비평화구조, 환경문제와 생태, 지구화가 야기하는 각종 위기와 갈등 등 평화의 주요 주제를 다룬 순수 학술논문을 엄선하여 싣고 있다. 특히 통일학/평화학의 다학제적 특성에 기반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실용적, 정책적 접근은 물론, 그 문명론적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작업 등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두루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학술지를 표방한다.

1) 16집 1호 (2024.06)



기획논문: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정영철 | 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혜정 |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일반논문

김선호 | 북한의 38선 경비부대 창설과정과 제한전 구상
막스 알텐호펜 | "독일은 제2의 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의 그늘에서 서독 재무장에 반대하는 여성 평화 운동가의 활동
김도민 |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류기현 |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 가입론의 대두
전순영 |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 재구성된 시민사회지표(CSI)를 중심으로
김학재 | 독일 통일 여론의 변화와 세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일을 이뤘는가?
나준성 | 도명학 소설의 자본주의 비판과 가치 교환의 (불)가능성
이문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 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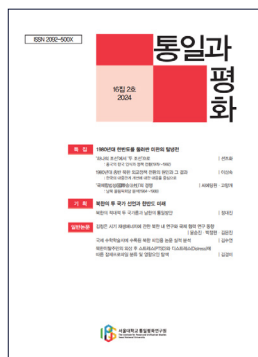
현장보고

이혜정 |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모순영 |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본 남북 공동 국어사전의 위상과 과제

서평

배개화 | 텍스트의 유동성과 진실성: 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2023)에 대한 서평

2) 16집 2호 (2024.09)



특집논문: 198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미완의 탈냉전

션즈화 |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 (1978~1992)

이상숙 |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한국의 대중 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씨에딩원·고양개 | '국제합법성(國際合法性)'의 경쟁: 남북 올림픽회담 분석 (1984~1988)

기획논문: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정대진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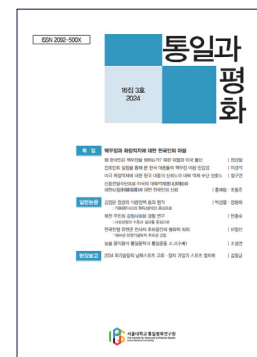
일반논문

윤순진·박정현·김은진 | 김정은 시기 재생에너지에 관한 북한 내 연구와 국제 협력 연구 동향

김수연 | 국제 수학학술지에 수록된 북한 피인용 논문 실적 분석

김경미 |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디스트레스 (Distress)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3) 16집 3호 (2024.12)



특집논문: 핵무장과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

정성철 | 왜 한국인은 핵무장을 원하는가?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

이경석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정구연 |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홍예림·조동준 |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 (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일반논문

박성열·정원희 |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가용량(FAD)과 획득성 (FED) 중심으로

안종숙 |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 연구: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이정선 |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의 평화적 의의: 1964년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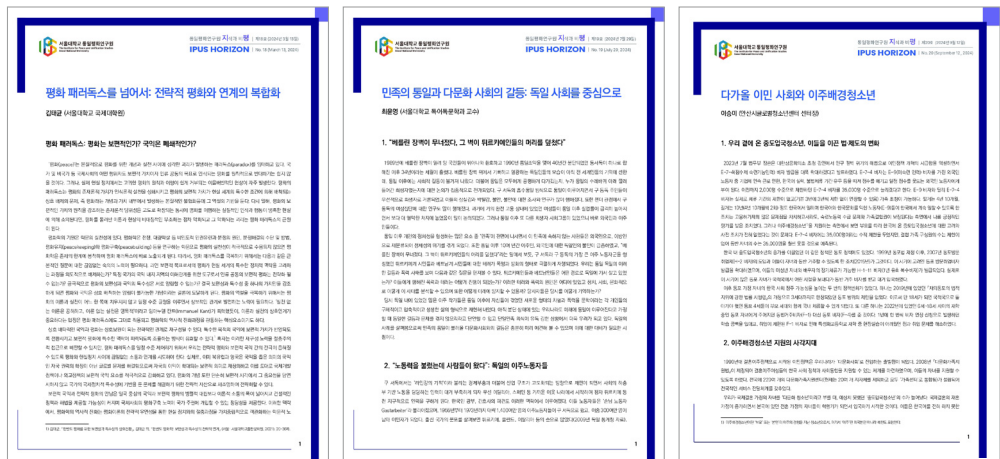
조성면 | 늦봄 문익환의 통일문학과 통일운동 소고(小考)

현장보고

김창금 | 2024 파리올림픽 남북스포츠 교류...정치 과잉과 스포츠 정치화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번호	발행일	저자	저서명
제18호	2024.03.13.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평화 패러독스를 넘어서: 전략적 평화와 연계의 복잡화
제19호	2024.07.29.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 사회의 갈등: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제20호	2024.09.12.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다가올 이민 사회와 이주배경청소년

《한-미 정책 브리프 (ROK-US POLICY BRIEF)》

한-미 정책 브리프(The ROK-US Policy Brief)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가 지역 및 글로벌 맥락에서 현재 한국 관련 정책 사안을 분석하는 공동 간행물이다. 변화하는 국제 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에 있어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 특히 한미 동맹의 상대국인 미국 전문가의 견해가 중요성이 대두되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한반도 관련 현안에 관한 글을 발간하고 있다.



번호	발행월	저자	저서명
준비호 (6월호)	2024.06.	Sydney A. Seiler (Senior Advise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Korea Chai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and the Future of Denuclearization
준비호 (7월호)	2024.07.	William B. Brown (Principal,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 LLC)	The Futur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24-Sep. ISSUE 1	2024.09.	Kim Yung Ho (Minister of Unification)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for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Unified Korean Peninsula
2024-Oct. ISSUE 2	2024.10.	Rachel Minyoung Lee (Senior Fellow, The Stimson Center's Korea Program and 38 North)	Contemplating Pyongyang-Moscow relations
2024-Nov. ISSUE 3	2024.11.	Christopher Warshaw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olitical Shifts and Policy Impacts: An Analysis of the 2024 U.S. Elections
2024-Dec. ISSUE 4	2024.12.	Kristi Govella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Oxford)	Institutionalizing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Recent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2025-Jan. ISSUE 5	2025.01.	Josh Rogin (Columnist, Washington Post)	The U.S. Perspective on Korean Democracy: Seoul's Political Crisis and Washington's Political Transition
2025-Feb. ISSUE 6	2025.02.	Robert Sutter (Professo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hallenges Fac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n Relations with Korea
2025-Mar. ISSUE 7	2025.03.	Kristin Vekasi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Main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Further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Possible?
2025-Apr. ISSUE 8	2025.04.	Anthony B. Kim (Jay Kingham Research Fellow, The Heritage Foundation)	Toward a Pragmatic Alliance: Seizing Strategic Opportunities in Trump's Second Term

